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5 호 3월 5일

평양 근로자사 1963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제 5 호 (219)

1963년 3월 (상)

(반 월 간)

차 례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 실현에 있어서의 획기적 사변

—제 1 차 당 대표자회 5 주년과 관련하여—

력사적인 우리 당 제 1 차 대표자회가 있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 갔다.

이 기간에 우리 당은 더욱 장성 강화되였으며 당 사업과 혁명 과업 수행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오늘 우리 당은 어떠한 풍파와 난관속에서도 조선 인민을 확고하게 승리에로 인도할 수 있는 세련된 혁명의 참모부로 되였으며 조선 인민이 전적으로 자기의 운명을 의탁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직한 향도적 력량으로 되였다.

전 당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단결되였으며 당 중앙 위원회의 맑스-레닌주의적 령도 체계는 전 사회에 철저히 확립되였다.

강철의 대오로 꾸려진 당의 통일은 전후 사회주의 건설에서 세기적인 변혁을 일으키며 조선 인민의 생활에서 거대한 전변을 가져 오게 한 결정적 담보로 되였다.

실로 우리 당이 오늘과 같이 불패의 력량으로 통일 단결된 때는 없으며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이 하나의 지도적 력량의 주위에 오늘처럼 굳게 결속된 때는 없다.

하나의 의지로 결속된 우리 당의 불패의 통일, 이것은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나라 로동 운동에서 력사적 고질로 되고 있던 종파주의, 온갖 기회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함으로써 이루어진 위대한 전취물이다.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 력사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는 것은 력사적인 제 1 차 당 대표자회다.

제 1 차 당 대표자회는 당 내에서 종파를 완전히 청산하고 우리 당 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 놓았으며 당을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원칙적 문제들을 제시하였다.

우리 당 발전에서 1 차 대표자회가 가지는 의의, 그가 남긴 력사적 교훈은 사회주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며 공화국 북반부를 붉은 일색으로 꾸림으로써 조국 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앞당겨야 할 오늘에 있어서 더욱 귀중하다.

⁂ ⁂

조선 공산주의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선 것은 당의 레닌적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였다.

우리 당의 지나 온 력사는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립각하여 당 대렬의 통일을 완수하는 간고한 투쟁 과정이였다. 바로 이 투쟁의 불'길 속에서 당은 더욱 단련되고 공고화되였다.

당 대렬의 통일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 력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것은 반종파 투쟁이였다.

이것은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특성, 우리 나라에 조성된 복잡한 혁명 정세, 우리 나라 종파의 악랄성과 관련하여 더욱 그러하였다.

해방 전 우리 나라 로동 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종파는 당내 투쟁을 통하여 극복되지 못 하였으며 따라서 종파를 완전히 청산하는 문제는 우리 세대에 부과된 력사적 과업으로 되였다.

조국이 분렬되여 있고 남조선을 강점한 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혁명 대렬을 내외로부터 분렬시키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종파 분자들의 파괴 책동은 극히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더우기 우리 나라 종파는 어떤 로선, 정책상 의견 차이에서가 아니라 순전히 《령도권》을 탈취하려는 야욕으로부터 출발한 혁명의 배신자들의 집단이였다.

따라서 이 자들은 그 수법이 교활하고 음모적이였으며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쑤들과 결탁하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력사적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반당 종파 분자들은 례외 없이 반혁명 세력과 결탁되여 있었으며, 당과 국가에 어려운 정세가 조성될 때마다 머리를 쳐들고 당과 혁명을 반대하여 나섰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당 내에서 종파를 청산하고 당의 확고한 통일을 고수하는 문제는 실로 사활적인 문제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당 대렬 내에서 종파주의, 가족주의 등 반맑스주의적 반당적 요소들을 반대하는 강력한 사상 투쟁을 끊임 없이 전개하였다.

우리 당은 정세가 어려울수록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견결히 고수하여 나섰으며 당원들의 당성을 강화하고 그들의 높은 정치적 각성에 기초한 전 당적인 사상 투쟁을 통하여 반당 반혁명 종파 도당들을 폭로 분쇄하였다. 1952년 제 5 차 전원 회의를 계기로 제국주의와 결탁한 화요파 종파 도당들이 폭로 분쇄되였으며 1956년 8월 전원 회의를 계기로 전개된 전 당적인 반종파 투쟁을 통하여 엠엘 종파 도당이 청산되였다.

오직 당내 종파를 반대하는 무자비하고 견결한 투쟁을 통해서만이 우리 당은 원쑤들을 격파하고 당의 통일을 철석 같이 고수하였으며 혁명의 확고한 승리를 보장할 수 있었다.

력사적 경험은 전 당이 그의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통일된 력량으로서 행동하는 때에는 정책 수행에 있어서 동요를 모르며 난관 앞에서 굴복을 모르며 투쟁에서 공포를 모르며 제기되는 어떠한 과업도 자신 있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고 있다.

제 1 차 대표자회는 해방 전후를 통하여 우리 나라 공산주의 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종파주의자들, 온갖 기회주의자들과 혁명의 변절자들을 반대하는 력사적인 투쟁을 총화 결속하였다.

대표자회를 계기로 우리 세대에 부과된 반종파 투쟁의 력사적 과업은 종국적으로 실현되였으며 우리 당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 서게 되였다.

당 내에서 종파가 청산된 조건 하에서 종파의 여독과 그의 온상으로 되는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청산하는 문제는 가장 중심적인 문제로 되였다.

대표자회 후 종파주의 잔재와 불건전한 사상 요소들을 청산하기 위한 전 당적인 투쟁이 전개되였으며 이 행정에서 당원들의 당성이 더욱 단련되고 전 당과 전체 인민들 속에 당적 사상 체계가 철저히 확립되였다.

당적 사상 체계가 확립됨으로써 전체 당원들이 당 중앙 위원회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되였으며 당 정책과 당 중앙 위원회의 의도는 당원들과 대중 속에 제때에 관통되고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은 가일층 공고화되였다.

당의 강철 같은 통일이 실현됨으로써 공화국 북반부는 단일한 정치적 력량으로 튼튼히 꾸려지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믿고 이끌면서 전진하는 화목하고 단합된 대가정으로 전변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당 제 4 차 대회는 우리 나라 공산주의 운동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한 위대한 승리를 총화하였다.

대표자회는 종파를 완전히 청산한 기초 우에서 당을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당의 기층 조직을 가일층 강화하고 당 핵심 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당원들의 당 생활과 당성 단련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한 문제를 제시하였다. 대표자회가 제시한 당 건설에서의 원칙적 문제들은 그 후 우리 당의 강화 발전을 위한 투쟁 행정에서 그 정당성이 확증되였으며 4 차 당 대회는 이를 재확인하였다.

오늘 우리 당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우리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당의 기층 조직인 세포를 계속 튼튼히 꾸리고 그의 전투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세포를 강화하는 것은 전 당을 강화하는 기본 담보이다.

세포는 당원들의 당 생활의 거점이며, 군중을 당 주위에 결속시키는 기본 초소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직접 군중 속에서 실현하는 전투 단위이다.

오직 세포를 강화하고 그의 전투적 기능을 높임으로써만 당을 더욱 반석같이 꾸릴 수 있으며 모든 단위, 모든 초소에서 우리 당의 정책을 철저히 관철할 수 있다. 또한 세포를 강화함으로써만 군중 속에서 당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고 모든 군중을 당의 주위에 튼튼히 결속하며 그들을 혁명 과업 수행에로 성과 있게 조직 동원할 수 있다.

특히 오늘 우리 앞에 제기되는 과업이 방대하고 그 내용이 복잡하여짐에 따라 개별적 부문, 단위들의 역할이 더욱더 중대된 조건 하에서 해당 단위의 최고 기관으로서의 세포의 전투적 기능을 높이는 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된다.

당 세포를 강화함에 있어서 현 시기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우선 세포 집행 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세포의 자립적 역할을 일층 제고하는 것이다. 세포 집행 기관이 튼튼해야 세포의 활동을 옳은 길로 이끌고 나갈 수 있으며 세포를 어떤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당의 원칙을 고수하며 당 정책을 견결히 옹호하고 그를 끝까지 관철하는 조직으로 되게 할 수 있다. 세포 집행 기관을 당성과 능력 있는 일'군으로써, 특히 실천 투쟁을 통하여 당원들과 군중들 속에서 검열되고 신임을 받는 핵심으로 꾸려야 하며 그들의 수준을 부단히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초급 일'군들의 사업 수준 제고에서 우리 당이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혁명적 군중 관점을 철저히 확립하고 군중 공작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동시에 당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관철하며 모든 사업에 앞서 당 정책, 당 중앙 위원회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는 당적 기풍을 수립하는 것이다.

우리 당은 세포를 강화함에 있어서 세포 집행 기관을 튼튼히 꾸리는 것과 함께 특히 당 핵심 대렬을 확대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당 핵심은 당원들과 비당원 군중을 당의 사상으로 부단히 교양하며 그들을

당 정책 관철에로 이끌고 나아가는 당 조직들의 주도적 력량이다. 당 핵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당은 더욱 강화되고 그의 전투력이 보다 제고될 것은 명백하다.

당 핵심의 역할을 더욱 제고하고 그 대렬을 부단히 확대하며 특히 개별적인 모든 초소, 단위들에 반드시 당 핵심이 배치되게 하여야 한다.

당의 기층 조직을 강화할 데 대한 대표자회 결정을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전 당을 하나의 의지로 결속시키고 불패의 요새로 전변시킬 것이며 나아가서 광범한 군중을 당의 주위에 묶어 세워 공화국 북반부를 붉은 일색으로 튼튼히 꾸릴 데 대한 우리 당의 전략적 방침을 성과 있게 실현할 것이다.

당원들의 당 생활을 강화할 데 대한 1 차 당 대표자회 결정을 관철하는 것은 전체 당원들을 발전하는 혁명 정세에 상응하게 우리 당의 사상으로 준비시키는 기본 고리로 된다.

조성된 혁명 정세는 모든 당원들이 계급적 각오 정도를 계속 높이며,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능히 자립적으로 당적 립장을 견결히 고수하며, 부화와 안일을 배격하고 긴장된 태세를 견지하며, 대중을 당의 주위에 묶어 세울 줄 아는 세련된 일'군으로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직 당 생활을 강화함으로써만 당원들은 당 중앙 위원회의 의지 대로 일치하게 사고하고 행동하게 되며 로동 계급의 세계관으로 철저히 무장할 수 있다.

당원들은 또한 당 생활을 통하여 당성을 더욱 단련하고 정치 의식 수준과 실무 수준을 높이게 되며 이리하여 대중 속에서 신망을 획득하게 되고 혁명 과업 수행에서 선봉적 역할을 충분히 놀 수 있게 된다.

당원들 속에서 당 생활이 강화될 때 당적 사상 체계는 더욱 철저히 확립될 것이며, 당의 전투력은 가일층 높아질 것이며, 혁명 과업은 성과 있게 수행되고 대중은 당의 주위에 더욱 굳게 결속될 것이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당은 당원들의 당 생활 강화에 특별한 주목을 돌리고 있으며 모든 당 조직들이 이 문제 해결에 력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당 생활 강화를 위하여 당이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당 생활 체계와 지도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당 생활에서 당원들의 자각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당원들의 당 생활에 대한 당 조직들 특히는 당 세포들의 일상적인 지도 방조는 당원들의 자각적인 당 생활과 밀접히 결합되여야 한다.

당의 이 요구가 관철될 때에 당원들의 당 생활 수준은 급속히 제고될 것이다.

* *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달성한 빛나는 승리는 무한히 귀중하다.

우리는 이 위대한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수호하여야 하며 그것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국제 국내적으로 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여 강력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오늘의 정세 발전은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혁명 대렬의 통일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최대의 혁명적 경각성을 가지고 원쑤들의 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여야 하며 온갖 부르죠아 사상의 침습을 반대하여 우리의 혁명 진지를 철옹성같이 강화하여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적 사상 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고 전 당의 확고한 통일을 고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때 우리 당은 조선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역할을 더 원만히 수행하게 될 것이다.

기계 제작 공업 부문에서 협동 생산을 개선 강화하기 위하여

조 동 섭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협동 생산을 잘 조직하고 철저히 집행하는 것—이것은 높은 기술과 심화된 분업에 기초하여 부단히 발전하는 사회주의 공업 생산의 필연적 요구이다. 협동 생산을 잘 조직함으로써만 규모가 방대하고 그 내용이 복잡한 사회주의 공업의 모든 생산 부문, 모든 생산 단위들을 유기적으로 련결시킬 수 있으며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분업과 생산의 전문화에 기초한 협동 생산에 의해서만 생산에서 높은 로동 생산 능률을 창조하며 원가를 저하시키고 제품의 질을 보장하며 공업 생산의 급속한 증대를 달성할 수 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자동차, 뜨락또르 생산이 째여진 협동 생산 체계에 의하여 진행됨으로써 기술이 발전되고 제품의 질이 개선되며 생산의 계통적인 장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은 이것을 잘 말하여 준다.

우리 당은 협동 생산을 잘 조직하는 것이 사회주의 공업 생산의 본질적 요구라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일찍부터 이에 심중한 주의를 돌려 왔다.

우리 당 제 3 차 대회는 우리 나라 공업 발전의 구체적 조건에 상응하게 《기업소 내 각 째호 호상간, 기업소 호상간 또는 공업 부문 호상간에 있어서 전문화와 협동화를 가능한 범위에서 광범히 도입》(김 일성 선집, 제 4 권, 488 페지)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 때로부터 4 년 후에 있은 1960년 8 월 확대 전원 회의에서는 공업 생산이 발전되고 생산의 전문화, 협동화 수준이 높아진 조건에서 이제는 기술 공학적 협동화와 부분품 협동화를 급속히 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강조되였다.

전원 회의가 제시한 방침에 따라 공업 생산에서 주물 및 단조품에 대한 기술 공학적 협동 생산과 각종 련결 요소들과 공구류들을 비롯한 규격품 생산에 대한 협동 생산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우리 당 제 4 차 대회는 이미 축성된 기계 제작 공업의 토대에 의거하여 《생산의 전문화와 협동화를 널리 실시》하며 《주물 및 단조품 생산과 부속품 생산을 전문화함으로써 로력과 철재의 랑비를 없애며 기계 제품의 질을 훨씬 높이도록》(김 일성,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할 방침을 취하였다.

경제 발전의 매 단계에서 협동 생산을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정확한 방침이 관철됨으로써 우리 나라

공업에서는 전문화, 협동화의 우월성이 최대한으로 발휘되였으며 공업 생산의 급속한 장성이 촉진되였다.

특히 기계 제작 공업에서는 공장, 기업소들 간에 계획적으로 맺어지는 생산적 련계의 중요 형태인 협동화가 그의 모든 측면에서 급속히 발전하였다.

우선 전문화의 발전에 따르는 높은 형태의 협동화가 획기적으로 강화 발전되였으며 이와 함께 개별적 기업소들 간에 조성되는 생산 능력상 과부족으로부터 이루어지는 협동화도 일층 확대되였다.

특히 협동화의 세 형태인 완제품, 부분품 및 기술 공학적 협동화 중에서 부분품 협동화가 일층 급속히 발전하였다.

례하면 최근 시기 자동차 생산에서는 7 개 성 산하 20 개의 공장들에서 281 개의 품종이 협동 생산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으며 뜨락또르 생산에서는 4 개 성 산하 17 개의 공장들에서 138 개 품종이 협동 생산에 의하여 조달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자동차, 뜨락또르 전체 부분품 및 결절품 수의 30~40%가 협동화 체계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 및 기술 공정 별로 되는 협동화와 함께 또한 일정한 지역 별로 되는 협동화도 크게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기계 공업성 산하 모든 공장, 기업소들은 물론, 전국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협동화 체계에 망라되고 있으며 하나의 큰 사회적 유기체를 이루고 있다.

새 사회 건설의 첫 시기에는 주로 공장, 기업소 호상간의 능력상 과부족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협동화와 그로부터 조건 지어진 기술 공학적 협동화가 주되는 형태였다면 오늘에 와서는 전문화의 발전에 따르는 협동화, 그 중에서도 특히 완제품 및 부분품의 협동화가 주되는 형태로 되였다.

공업에서 분업이 심화되고 생산의 전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그 형태와 내용에서 부단한 변화를 이룩한 우리 나라의 협동화 체계는 생산의 급속한 발전을 확고히 보장하였다.

1960년에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업의 생산액이 1946년의 100 배에 달하게 된 것은 협동 생산의 이러한 급속한 발전과 크게 관련된다.

우리의 기계 제작 공업은 최신의 기술에 기초한 개별적인 기계 설비들 뿐만 아니라 현대적 공장, 기업소들의 종합적인 기계 설비들을 생산 공급할 수 있게 되였다.

이와 같이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 협동 생산을 널리 실시할 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빛나는 성과를 가져 왔다.

인민 경제의 규모가 비할 바 없이 확대되고 공장, 기업소들 간에 맺어지는 생산적 련계가 비상히 복잡해졌을 뿐만 아니라 계속 천리마의 진군을 견지해 나가야 할 오늘의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객관적 현실은 모든 생산 단위들에서 협동 생산을 더 잘 조직하고 철저히 집행할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요구로 제기하고 있다.

특히 분업이 심화되고 그에 따라 전문화 정도가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기계 제작 공업 부문에서는 광범한 협동 생산을 조직 집행함이 없이는 일보도 전진할 수 없게 되였다.

우리 당은 기업 관리에서 가장 선진적인 형태로 되는 대안의 사업 체계를 확립하여 공장의 관리 운영 사업에서

혁신을 이룩하게 하였으며 성 산하에 자재 상사를 새로 설치하여 협동 생산 지령부의 역할을 담당 수행케 함으로써 협동 생산의 광범한 조직 진행을 위한 극히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여 놓았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5 차 전원 회의는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성과적 수행에서 협동 생산 조직이 가지는 커다란 의의를 강조하면서 모든 생산 단위들에서 협동 생산을 정확히 조직하고 철저히 집행할 것을 10 대 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10 대 과업에서 제시된 다른 모든 과업과 함께 협동 생산을 잘 조직 집행하는 것은 금년도 계획의 성과적 완수를 보장하며 새로운 더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준비 사업의 철저한 수행을 담보하는 중요 고리로 된다.

그러면 현 시기 기계 제작 공업 부문에서 우리 당이 강조하고 있는 협동 생산 조직의 기본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술 혁명의 전면적 수행과 관련하여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그 수요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최신의 중형 기계들과 정밀 기계들의 부분품을 대상으로 하는 협동화를 강화 발전시키면서 완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협동화와 기술 공학적 협동화도 더욱더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소 호상간에 생산 능력의 과부족을 타개하기 위하여 조직되는 협동화도 강화할 것이다. 그것은 공장, 기업소들 간에 생산적 련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일시 능력상 과부족이 생길 수 있는 것과 특히 개별적 기계 설비들의 생산 능력에서 균형이 보장되지 못한 기업소들이 아직 일부 있는 우리 공업의 실정에서 기업소들의 생산 능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협동화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기 때문이다.

협동 생산의 정확한 조직을 위하여 모든 생산 단위들에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중요 과업은 첫째로 협동 생산에 망라되고 있는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호상 책임성을 제고하며 계획 규률을 강화하여 협동 제품을 제때에 어김 없이 보장하는 것이며 둘째로 협동 제품과 부분품 및 작업의 질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것은 협동 생산의 정확한 조직과 그의 철저한 집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되는 동시에 생산의 정상화와 그의 부단한 장성을 위한 필수적 전제로 된다.

최근 뜨락또르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협동 생산에 참가하고 있는 일련의 공장, 기업소들 간에 협동 제품을 제때에 질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투쟁이 확대되고 있다.

기계 제작 공업 부문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은 물론, 전국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은 이 모범을 따라 련관된 기업소들 간의 협동 생산 조직을 일층 개선 강화함으로써 협동 생산의 우월성과 그의 생활력을 남김 없이 발휘시키며 생산 발전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협동 생산을 정확히 조직 집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모든 경제 기관, 기업소 지도 일'군들 속에 남아 있는 기관 본위주의 사상과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철저히 극복하는 것이다.

오늘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은 호상 긴밀히 련결되어 있으며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어느 한 부문, 어느 한 고리가 잘못 되여도 그것은 련관된 다른 부문, 다른 공장들에, 나아가서는 인민 경제 전반에 큰 지장을 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경리 운영에서는 사소한 기관 본위주의의 발현도 허용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난 시기 일부 기업소들에서는 협동 제품 생산을 차요시하고 금액이 높은 제품 생산에 치중한 나머지 협동 생산의 계약 규률을 위반하며 제품의 질과 규격을 보장하지 못함으로써 협동 생산에 지장을 준 현상들이 있었다.

협동 생산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완강한 사상 투쟁을 전개하여 일부 일'군들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관점 즉 협동 제품 생산을 마치나 남의 일을 도와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릇된 사상 관점을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협동 생산의 일부 제품에 대한 평가 방법을 고치여 그에 대한 일'군들의 관심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일반적으로 협동 생산 제품들은 기술 공정이 복잡하고 정밀한 데다가 물체가 작기 때문에 품은 많이 들면서도 금액은 상대적으로 낮게 되여 있다.

협동 생산에서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며 협동 생산에 대한 일'군들의 책임성과 호상 협조 정신을 배양시킨다면 일부 기업소들에서 발로시킨 것과 같은 기관 본위주의적 현상은 능히 극복될 수 있다.

현재 기계 공업성 뿐만 아니라 각 성들과 지방 공업에는 그 규모가 큰 기계 공장들이 수다히 망라되여 있는데 이 공장들의 리용 정도는 실로 각이한 상태에 있다. 한편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큰 부하가 걸리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그것이 지내 낮게 걸리고 있다.

또한 공화국적으로 지난해 많은 동일한 제품들이 각이한 공장들에서 생산된 결과 로력, 자재의 적지 않은 랑비를 가져 왔다.

이 모든 것은 생산 조직상에서의 결함과 함께 지도 일'군들 속에 남아 있는 기관 본위주의로 인하여 초래된 현상인 것이다.

이 부문의 모든 지도 일'군들은 협소한 기관 본위주의를 청산하고 전 인민 경제적 립장에서 모든 공장들의 생산 능력과 기술 력량에 대한 합리적인 리용 대책을 강구하며 유일적인 생산 기술적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협동 생산을 전 국가적 범위에서 가일층 일원화하고 나라의 기술 및 생산 발전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도록 하여야 한다.

협동 생산의 정확한 조직을 위하여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분야에서 계획화 수준을 결정적으로 제고하는 것이다.

협동화의 정확한 계획화는 협동 생산을 잘 조직하고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경제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주관주의적 편견으로부터 왕왕 현실과 유리된 계획을 작성 시달하거나 실정에 대한 세밀한 타산을 하지 않는 데로부터 긴절히 요구되는 제품 생산을 계획에서 루락시키며 심중한 사전 대책을 강구함이 없이 지표들을 임의로 떼여 옮기고 있다.

례컨대 계획화에서 선박 한 척 또는 엑쓰까와또르 한 대의 생산은 국가적으로 귀중하게 취급하고 있으나 그에 부대되는 유리 제품, 고무 제품들은 기타 일반 지표에 포함시켜 부차적인 것으로서 처리하고 있다.

이것은 일'군들이 계획화에서 대안의 지도 정신을 구현하지 못 하고 계속 낡

은 틀에서 사업하고 있는 데로부터 나온 부족점인 것이다.

경제 기관, 기업소 지도 일'군들은 계획화에서 군중 로선을 관철시키여 기업소의 기계 설비의 종류, 그 능력, 부하 정도, 기술 력량, 보장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타산한 기초 우에서 모든 협동 생산품들이 1 개월 이상 선행되도록 하며 기본 공정의 조립 작업 계획과 협동 생산 계획이 잘 맞물리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지도 일'군들은 협동 생산 계획화에서 모든 것을 혼자서 하려는 경향을 배격하는 동시에 지나친 협동 생산을 조직함으로써 도리여 완제품 생산에 지장을 가져 오게 하는 현상이 없도록 계획 작성에서 미리 예견하여야 한다.

협동 생산을 조직 집행함에 있어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생산 조직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문제이다.

협동 생산에 대한 생산 기술적 지도를 개선 강화하며 그에 대한 보장 대책을 정확히 강구 실시하는 것은 협동 생산의 성과적인 실현을 위한 기본 고리로 된다.

우선 련합 생산의 참모부인 생산 관리국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업소 호상간의 생산적 련계는 주로 기업소들과의 수직적인 련계 관계에 있는 생산 관리국을 통하여서만 이룩되기 때문이다.

김 일성 동지는 일찌기 관리국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몇 개 기업소의 련합체를 관리국이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국은 모든 공장들의 생산 활동을 매일과 같이 료해 장악하고 련합 생산에 대한 지령을 하며 필요에 따라 보고를 청취하며 일상적으로 아래에 내려 가 도와 줌으로써 모든 공장들이 다 계획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국들은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방법을 사업에서 철저히 구현하여 협동 생산 계획의 작성으로부터 그의 조직 집행에 이르는 모든 행정을 책임적으로 지도 방조하며 걸리고 있는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해 주어야 한다.

또한 관리국과 기업소들은 협동 생산의 정확한 집행을 위하여 생산에 앞서 기술 설계와 공구 지구를 철저히 갖추고 기계 설비들을 예방 보수하며 자재를 확보하여야 한다.

협동 생산 조직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수요자와 생산자 기업소들 간에 제품의 규격 치수 및 재질 등 기술 조건에 대한 정확한 합의를 보는 것이다.

지난 시기 일부 경우 이것이 철저히 준수되지 않았던 관계로 제품을 만들어 놓고 쓴다 못 쓴다고 시비하는 현상이 있었다.

그러므로 관리국들과 기업소들은 기술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에 기초하여 생산을 조직할 것이며 국가적 립장에서 엄격한 제품 검사를 실시하고 그것을 제때에 상대방 기업소에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협동 생산 조직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전국적 범위에서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그에 기초한 협동 생산 기지를 확고히 조성하는 것이다.

공업 생산 규모가 확대되고 제품의 품종과 수량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오늘 이것은 협동 생산에서 더욱더 큰 의의를 가지게 되였다.

협동 생산의 확대 강화를 위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정확한 수요를 확정하고 그 기초 우에서 기술 공학적 내역에 따라 류사한 품종을 선별하며 그 규모에 따라 생산을 기업소들 간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며 기업소 내부 전문화를 적극 조직하여야 한다.

협동 생산 조직에서 관리국의 생산 기술적 지도를 개선함과 함께 협동 생산 지령부인 자재 상사들과 수송 기관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현재 기계 공업성의 자재 상사가 취급하는 자재의 총 품종수는 규격별을 제외하고도 실로 2,400 여 종에 달하며 이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소 수는 근 200 개나 된다.

이러한 방대한 협동 생산품들을 전국 도처에 널려 있는 공장, 기업소들로부터 받아 오며 그것을 또한 전국에 널려 있는 기계 공장들에 15일~1 개월 간 이상이나 생산에 선행하여 정확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것은 협동 생산 지령부인 자재 상사와 수송 기관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제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재 상사들과 수송 기관들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협동 생산 계획에 따라 생산된 제품들을 제때에 인수하고 제때에 어김 없이 공급하여야 한다.

특히 자재 상사들은 자재와 협동 제품에 대한 인수 인도 사업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공급 기업소에 수요자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며 생산 일정과 그 전망을 일상적으로 장악하며 그에 기초하여 생산을 촉진 및 조절하는 등 협동 생산 지령부의 역할을 옳게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자재 상사 일'군들은 협동 생산 계획 작성 과정에 반드시 참가할 뿐만 아니라 생산 행정에 깊이 들어 가 당 정책 관철에서 그 제품 생산이 가지는 의의, 사용 용도 및 기술적 특성들을 료해하며 협동 생산 사업에 정통하여야 한다.

오늘 협동 생산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우리 공업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협동 생산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경제 기관, 기업소들의 지도 일'군들 속에서는 아직도 협동 생산에 대한 낡은 관점, 낡은 사고 방식, 낡은 틀을 청산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부문 당 조직들은 협동 생산의 성과 여부가 그에 대한 당적 지도 여하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당원들과 대중 속에서 정치 사업을 강화하여 협동 생산이 가지는 인민 경제적 의의를 널리 해설 침투시키는 동시에 강한 사상 투쟁을 전개하여 사소한 기관 본위주의적 경향도 허용하지 말며 모두가 다 주인다운 립장에서 협동 생산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 조직들은 기업소 지도 일'군들 자신이 협동 생산을 직접 틀어 쥐고 추진하도록 하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급 당 조직들, 경제 부문 지도 일'군들과 전체 근로자들은 협동 생산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백방으로 발휘시켜 금년도 계획 수행에서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자.

현 시기 제국주의 부르죠아 사상의 기본 특징

최 정 현

현 시기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간,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죠아지 간의 계급 투쟁은 정치, 경제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사상 전선에서도 날로 치렬하게 전개되고 있다.

제 2 차 세계 전쟁 이후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일층 심각화됨에 따라 제국주의 부르죠아지는 저들의 멸망을 막아 보려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집요하게 각종 반동적 사상들에 매여 달리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제국주의 독점 자본가들은 자기들의 수중에 장악된 모든 출판물들과 보도 기관들 기타의 각종 선전 기구들을 통하여 썩어 빠진 제국주의 부르죠아 사상 독소들을 자본주의 나라들에 광범히 류포시키며 그 독소를 사회주의 진영 내부에까지 침습시키려고 온갖 수단을 다하고 있다.

멸망에 직면한 그들은 자기들의 계급적 리익에 필요한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서슴지 않고 모든 사상 형태들을 다 리용하려고 광분하고 있다.

오늘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각이한 철학 리론, 경제 리론, 미학 리론들이 잡다하게 류포되여 부르죠아 사상계의 혼란성을 자아내고 있는 것은 결코 리유없는 일이 아니다. 독점 자본가들은 여러 가지 사상 조류들을 류포시킴으로써 각이한 계층들을 자기들의 사상에 얽어매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시에 그들은 《자유 세계》의 사상계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듯이 가장해 보려고 날뛰고 있다.

오늘 부르죠아 이데올로기 분야에서는 하루'밤 사이에 생겼다가도 그 다음날 없어지는 《새 리론》이 매일과 같이 조작되고 있으며 마치도 그것들이 서로 본질상 다른 것과 같은 외관을 보이려 하면서 그것들 호상간의 《론쟁》도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력사 발전이 자본주의 멸망을 재촉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오늘의 부르죠아지는 사상 분야에서 더는 새로운 것, 창조적인 것을 내놓을 수 없게 되였다.

우리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보게 되는 부르죠아 사상 조류들의 혼란성은 제국주의 시대에 와서 독점 자본가들이 여러 가지 부르죠아 사상 조류들 가운데서 결정적으로 우세한 사상을 내놓을 《훌륭한 것》, 《새로운 것》을 가지고 있지 못 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철학 사상 분야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철학 분야에서 부르죠아 사상은 헤겔 이후에 더는 발전하지 못 하였고 아무런 《독창적인 것》을 내놓을 수 없었다.

또한 최근 시기 자본주의 경제적 위기가 날로 심각화됨에 따라 많은 부르죠아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정치 경제학의 위기에 관한 문제가 날로 우심하게 론의되고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 경제 현상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미 폭로된 속류 정치 경제학의 리론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많은 경우에 부르죠아 사상가들은 이미 100 여 년 전에 생긴 낡은 사상들, 학설들을 되풀이 하거나 이러저러하게 가공하여 《리론》을 꾸며 내고 있다. 오늘 부르죠아 문헌들에서 《위대한 사상적 결여》라는 비명이 자주 들려 오는 것은 우연하지 않다.

제국주의 부르죠아 사상의 《발전》의 이러한 추세는 과거 평화, 민주주의, 독립을 옹호하던 자유주의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의 특징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봉건 제도를 반대하여 투쟁하던 부르죠아 사상의 기본적 특징은 개인의 자유, 과학에 대한 관심, 반종교심과 사회적 진보에 대한 신심 등이였다. 이것은 물론 진보적이였고 인류 사상사에 새로운 기여를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부르죠아지가 이러한 진보성을 띠고 나오던 시기는 영원히 지나 갔다.

오늘 제국주의 부르죠아 사상이 《새로운》 측면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상의 반동성이 더욱더 강화되였다는 사실이다.

현 시기 제국주의 부르죠아 사상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반동적 경향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죽어 가는 계급의 멸망에 대한 공포에서 나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멸망을 막아 보려는 최후 발악에서 나오는 측면이다.

제국주의 부르죠아 사상들 가운데는 공포에 떨면서 멸망 앞에서 눈을 감고 사회 발전 법칙에 대한 랭철한 리성적 사고를 거부하는 비합리주의와 몽매주의, 현실에 대한 외곡과 허위, 염세주의, 비관주의, 부패성 등의 특징이 더욱더 농후해지고 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많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제국주의 부르죠아지는 멸망 앞에서 최후적으로 발악하면서 파시즘의 사상과 《반공》 사상을 더욱더 요란스럽게 선전하고 있다.

제국주의 부르죠아 사상의 이러한 특징들은 서로 밀접히 결부되여 호상 보충하면서 제국주의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의 반동성을 날로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현대 제국주의 부르죠아 사상 《발전》의 주요한 추세이다.

1

현 시기 제국주의 부르죠아 사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비합리주의의 경향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점이다.

오늘 대부분의 부르죠아 사상가들은 리성보다도 본능과 직관, 비리성적인 의지, 맹목적인 무의식적 힘을 더 중요한 것으로 내놓고 있으며 인간의 리성적, 론리적 인식의 가능성,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인식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온갖 몽매주의와 신비주의를 류포시키고 있다. 이러한 비합리주의의 강화는 제국주의 부르죠아지의 리해 관계와 기분의 반영이다.

현 시기 자본주의 멸망의 불가피성이 날로 명백해지고 있는 조건 하에서 부르죠아 계급은 사회 발전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그 자체가 자본주의의 현존 질서에 커다란 위험을 준다고 생각한다.

이로부터 그들은 과학을 공공연히 거부하고 미신과 봉건적 신분적인 륜리를 그대로 혹은 새로이 만들어 리용하려 한다.

과거에도 비합리주의는 언제나 극도로 반동화된 계급의 사상으로 나왔었다. 때문에 부르죠아지가 반동화됨에 따라 니체의 권력 의지설, 베르그송의 신비적 직관설 등은 부르죠아 사상계에서 광범히 류포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비합리주의적 경향은 현 시기 거의 모든 부르죠아 사상 조류에 고유한 것으로 되였다. 남조선의 한 철학가가 《비리성적인 것의 우위와 지배는 현대

의 기본적 성격의 하나》라고 한 것은 우연하지 않다.

오늘 쇼펜하우어, 니체, 베르그송, 제임스, 럿셀, 듀이 등의 비합리주의적 사상은 바단 철학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생물학과 심리학, 사회학, 문학 예술, 부르죠아적 생활 양식 등 모든 분야에 깊이 침투되고 있으며 제국주의 부르죠아 사상 조류의 모든 부문에서 합리주의적 사상은 거부 당하고 있다.

비합리주의의 전형적인 철학 조류의 하나인 실존주의는 불란서와 서부 독일 그리고 남조선을 비롯한 많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가장 널리 류포되고 있다. 실존주의에 의하면 객관적 세계란 혼돈과 부조리의 왕국이며 여기에는 오직 맹목적이며 신비로운 힘이 작용할 뿐이고 따라서 사람들이 세계의 본질을 리해하기에는 인간의 리성, 개념적 사유가 너무도 무력하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실존주의에는 리성에 대한 전례 없는 멸시와 과학적 지식에 대한 증오가 특징적이다.

헤겔 이후 아무런 독창적인 것을 내놓을 수 없게 된 부르죠아 사상가들 가운데는 헤겔에 의하여 이미 극복된 낡은 철학 체계의 비합리주의적 사상을 새삼스럽게 제창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세기적 몽매주의와 신비설을 재생시키려는 자들이 날로 많아지고 있다.

심지어 부르죠아 사상가들은 사람들을 몽매화하기 위하여 종교를 공공연히 리용하고 있다. 특히 신토마스주의에서는 철학과 종교가 밀접히 유착되고 있다.

리성과 법칙을 공공연히 거부하고 심지어 종교를 로골적으로 설교하는 비합리주의적 경향의 강화는 현대 제국주의 부르죠아 사상을 더욱더 무력하게 하고 있다.

많은 부르죠아 학자들은 자기들의 계급적 제한성과 피상적이고도 방법론이 없는 순수한 경험주의로 하여 모든 문제의 고찰에서 주관주의와 혼돈에 빠지고 있다. 그들은 법칙과 리론을 거부하면서 자료들과 경험들을 수집하는 것으로 만족하려 한다. 특히 이것은 부르죠아 사회학자들에게서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 사회학 련맹 위원장이며 서부 독일 부르죠아 사회학자인 페 케니히는 제 4 차 사회학자 대회에서 사회 현실에 대한 일반화와 그의 법칙에 대한 연구를 거부하면서 《리론은 결국 자료들의 세심한 수집과 분류의 결과 저절로 발생한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사회에 대한 진정한 과학이 없으며 오직 순수한 통계만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사말적인 문제들에 대한 이러저러한 통계만 내고 현실 발전의 본질과 인연이 없는 경험적 자료들을 잡다하게 수집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인민 대중을 더욱더 방향 없는 혼돈 속에 떨어지게 하며 인민들의 주의를 계급 투쟁에서 다른 데로 돌리며 인민들의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키고 있다.

그들의 부르죠아적 당성은 여기에서 표현된다.

2

현 시기 제국주의 부르죠아 사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이 사상이 현실을 외곡함에 있어서 더욱더 파렴치하게 되였고 가일층 기만적인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데올로기적 가면과 데마고기는 반동의 중심지에서, 제국주의 부르죠아지가 자신의 멸망에 대한 위협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곳에서 더욱 심하다.

제 2 차 세계 대전까지 반동의 중심이 독일과 일본이였다면 오늘에는 그것이 미국으로 옮겨졌다. 지금 미국에서는 부르죠아 사상가들에 의한 현실 외곡은 극단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것은 미국에서 발생하였고 미 독점 자본의 공식 철학으로 인정되여 있는 실용주의에서 전형적으로 찾아 볼 수 있다. 실용주의는 유물론과 관념론을 초월한 《제 3의 로선》이라고 자처하면서 사람들을 기만하려 한다.

실용주의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실재는 《순수한 경험》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경험》은 객관적 현실과는 인연이 없고 오직 주관적 감각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다. 결국 이것은 실용주의자들이 말하는 유일한 실재란 버클리나 마하가 말한 사물과 현상은 《감각의 복합》이라고 한 그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실제상 실용주의는 제국주의 부르죠아지들이 가장 교활한 관념론의 형태를 들고 나온다는 것을 보여 주는 데 지나지 않는다.

실용주의자들은 세계의 객관성, 진리의 객관성을 거부하면서 진리란 유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지배 계급에게 유용하면 착취나 침략, 전쟁할 것 없이 그 어떠한 것도 모두가 진리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실용주의는 제국주의 독점 자본의 본성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다.

실용주의의 반동적 사상은 미국 뿐만 아니라 영국, 서부 독일, 이태리 등에서 광범히 류포되고 있으며 특히 남조선에서 실용주의는 미국식 생활 양식의 이데올로기로, 학교 교육 체계와 교육학의 리론적 기초로 매우 큰 후과를 미치고 있다.

현대 제국주의 부르죠아 사상의 기만성은 과학의 성과를 외곡하고 악리용하는 데서도 표현된다. 그것은 특히 신실증주의에서 심하게 나타난다. 미국에 많이 류포되고 있는 신실증주의는 현재 주로 자연 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부르죠아 인테리 속에서 광범히 류포되고 있는데 신실증주의는 철학의 기본 문제를 거부하면서 자기의 철학을 《과학 철학》이라고 하고 있으며 현대 자연 과학의 자료들과 성과들을 부단히 외곡하고 있다.

많은 부르죠아 경제학자들, 특히 케인스주의적 경향의 경제학자들은 경제에 대한 국가적 간섭이 자본주의 경제 법칙의 작용을 변경시키는듯이 설명함으로써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급격한 강화를 외곡되게 반영하고 있다.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데 더욱더 무력해진 그들은 자본주의를 변호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적 언사를 쓰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인민들 속에서 사회주의 사상의 견인력이 현저히 장성된 조건 하에서 그들은 심지어 자본주의 체계가 더욱더 《사회주의화》되고 있는듯이 주장하고 있다. 부르죠아 경제학자 라이트는 《자본주의가 보다 더 사회주의적으로 되였고 한편 사회주의가 보다 더 자본주의적으로 된 오늘날 재래의 렛텔을 운운하는 것은 보잘 것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제국주의 부르죠아 사상가들은 자본주의적 착취의 본질을 은폐하기 위하여 《인민적 자본주의》, 《조직된 자본주의》 등 터무니 없는 《리론》을 조작하여 인민들을 기만하려 한다. 제 2 차 세계 전쟁 후 주로 미국 부르죠아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매우 많이 류행된 《인민적 자본주의》 주장자들은 전후의 자본주의가 과거처럼 자본가들의 리익을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 않으며 자본주의 하에서 인민 대중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황당무계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

남조선에서도 미제와 그 주구들은 《인민적 자본주의》론을 류포시킴으로써 미국 자본주의의 《영원성》과 《강대성》에 관한 신화로 남조선 인민들을 숭미 사상으로 물들게 하며 남조선 사회의 모순을 은폐하고 남조선을 미제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발악하고 있다.

3

비관주의와 염세주의—이것은 현대 제국주의 부르죠아 사상의 기본 특징의 하나이다. 언제나 사멸하여 가는 반동 계급의 이데올로기로 등장한 비관주의는 오늘에 있어서도 현대 자본주의의 불가피한 몰락을 반영하고 있다. 부르죠아 사상의 비관주의와 염세주의 그리고 허무주의는 반동 계급이 미래에 대한 공포와 치명적인 위협에 대한 예감으로 전률하고 있는 사실을 말하여 준다.

동시에 제국주의 부르죠아 사상가들은 저들의 비관주의, 허무주의, 염세주의에서 체험하고 있는 위협, 멸망에 대한 공포를 전체 인류 앞에 부닥친 그 어떤 숙명적인 파국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오늘 모든 부르죠아 출판물들은 전쟁이 인류를 멸망시킨다는 사상을 부단히 선전하고 있으며 《세계의 멸망》, 《20 세기의 위기》, 《우주 세계의 멸망》에 대하여 날로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다.

제 2 차 세계 전쟁 이후 《죽음의 철학》, 《절망의 철학》, 《불안의 철학》인 실존주의가 서부 독일과 불란서, 남조선 등 많은 나라들의 부르죠아들 사이에서 전염병처럼 급속히 만연된 것은 부르죠아 사상계에서 비관주의와 염세주의 그리고 허무주의적 경향이 얼마나 강화되고 있는가를 잘 말하여 주고 있다.

제국주의 부르죠아 사상의 비관주의와 염세주의, 허무주의적 경향은 모든 건전한 지향을 반대하는 극단의 타락, 부패성과 밀접히 결부되여 있다.

제국주의 부르죠아지는 인민들 특히 청년들을 타락시킴으로써 인민들의 주의를 부화한 것에로 돌리고 그들을 건전한 생활에서 리탈시키며 그들의 혁명 투쟁 의욕을 저하시켜 자기들이 마음대로 통치해 보려고 날뛰고 있다.

제국주의 부르죠아 사상의 부패성과 타락은 성적인 방종과 도덕적 부화, 육체적인 향락과 탐욕을 찬미하고 절대화하는 데서 뚜렷이 나타난다.

심리학 분야에서 제국주의 부르죠아 사상계에서는 《사람은 날 때부터 성욕과 지배욕을 가지며 이것이 인간의 모든 행동의 기본으로 된다》고 하는 프로이드의 성욕 심리학이 아직도 가장 많이 류포되고 있다. 프로이드주의, 신프로이드주의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보급되여 사람들의 의식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것은 미국에서 미증유의 쎈세이숀을 일으킨 아. 킨시의 저서 《녀성의 성적 행동》의 실례가 명백히 말하여 준다. 이 서적은 수천 명의 녀성들의 성생활에 대한 자료와 《분석》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세상에 나온 이후 미국의 어느 한 잡지에서 만약 이 책의 저자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면 틀림 없이 당선될 것이다》라고 쓸 정도로 그것은 미국 부르죠아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이는 부르죠아 사상계가 얼마나 타락되고 있는가를 명백히 보여 준다.

특히 제국주의 부르죠아 예술은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하며 방탕에로 이끄는 것을 자기의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오늘 부르죠아 사회의 영화나 라지오, 카페와 다방에서 흘러 나오는 미국식 쟈즈 음악은 사람들의 건전한 리성과 정서 생활을 마비시키며 그들 속에 부화를 설교하고 동물적인 향락주의와 굴종의 사상을 배양하고 있다.

특히 제 1 차 세계 대전이 발발한 초기에 미국 유흥장에서 시작된 미국식 쟈즈는 오늘 제국주의의 최후 운명이 더욱더 박두함에 따라 부패 타락한 억만장자들과 불량배들의 색정적이며 변태적인 향락, 악취미를 충족시킴에 있어서 날이 갈수록 더욱더 추잡해지고 있으며 광란적인 형태를 띠게 되였다.

오늘 남조선에는 수 많은 쟈즈 악단이 조직되여 있으며 심지어 《아리랑》, 《도라지》를 비롯한 많은 민요들이 《아리랑 맘보》니 《도라지 맘보》니 하면서 쟈즈화되고 있다.

미국식 생활 양식은 세계 반동의 아성인 미국의 제국주의 부르죠아 사상의 부패성과 타락성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보여 준다. 이것은 《황금 만능》, 략탈과 부화 방탕, 도덕적 타락과 극단한 개인 리기주의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미제의 사상적 무기로 리용되고 있다.

특히 남조선에서 해방 직후부터 미제가 부식시킨 반동적인 《미국식 생활 양식》은 남조선의 전 사회를 부패와 타락의 진창 속에 몰아 넣고 있다. 《미국식 생활 양식》은 남조선 인민들의 민족적 의식과 계급적 각성의 제고를 억제하려고 하며 조선 인민의 고유한 문화 전통과 미풍 량속을 말살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다.

《미국식 생활 양식과 인간 증오 사상은 남조선에서 륜리와 도덕을 파괴하며 우리 인민의 유구한 민족 문화와 아름다운 생활 풍습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암흑과 타락이 남조선 전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선집 제 6 권, 87 페지)

4

이렇듯 현 시기 제국주의 부르죠아 사상의 반동성을 규정하는 특징들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이 모든 특징들에 일관되여 있는 공통점은 결국 자본주의 제도의 옹호와 반공산주의에 귀착된다.

오늘 자본주의 제도를 옹호하는 부르죠아 사상의 반동성은 부르죠아 사상계에서 파시즘 사상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데서 중요하게 표현된다.

파시즘의 사상은 금융 독점 자본의 가장 반동적이며 배외주의적이고 가장 제국주의적인 분자의 공공연한 테로 독재를 반영한 이데올로기이다.

파시즘의 사상적 경향의 강화는 제국주의 부르죠아지의 최후 발악을 전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사회주의 세계 체계의 위력의 강화, 식민주의의 계속적인 붕괴, 로동 운동과 민주주의 운동의 장성과 관련하여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헌법상의 자유

나 의회주의에 기초한 부르죠아 민주주의 제도가 공공연한 독재로 교체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이 경향은 현대 제국주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특징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것은 미국에서의 맥카시주의, 서부 독일의 나치즘의 부활, 일본에서의 군국주의의 재생 등 자본주의 여러 나라들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미제의 내정 간섭으로 파쑈 제도가 확립된 약소 민족 국가들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력사적 경험은 파시즘은 정세 발전의 구체적 변화에 따라 저들에게 가장 편리한 구호와 간판을 들고 출현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히틀러의 나치즘에게서와 같이 민족주의가 뿌리 깊고 사회주의 사상이 비교적 많이 보급된 나라에서는 그것이 《국민 사회주의》의 간판 밑에 나타나며 자유, 민주주의 전통이 강하고 그것과 정면으로 투쟁하는 데 불리한 환경 하에서는 파시즘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적극적》 수단인듯이, 기독교의 전통이 강한 곳에서는 기독교의 옹호자인듯이 가장하여 나선다.

파시즘을 제창하는 사상과 리론이 이렇게 체계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자체의 론리에서 모순되여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일련의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민족 지상주의와 배타주의, 인종론과 지정학, 대중을 경멸하고 그를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사상, 지도자에 대한 초인 사상, 전쟁 선동 《리론》 등의 경향의 강화이다.

멸망 앞에서 최후 발악하는 제국주의 부르죠아지들은 자본주의를 옹호하기 위하여 각종 침략 사상을 류포하고 있다. 특히 미국 독점 부르죠아지들은 세계 제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계 전쟁 선동을 부단히 강화하고 있으며 피쓰모뽈리찌즘, 신말사스주의, 사회 다윈주의 등 전쟁과 침략을 합리화하는 각종 이데올로기를 류포시키기에 광분하고 있다.

미국 지배 계층들은 마치도 미국이 세계에서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할 임무가 부여된 것처럼 말하고 있다.

미제의 세계 제패 사상은 케네디의 특별 고문 체스타 볼즈가 포린 어페어즈 지 작년 7월 호에 실린 론문에서 미국의 세계 제패의 야망에 대하여 진술한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명백하다. 《미국 국민은 문명 사회의 오랜 력사를 거쳐 다른 번영한 강력한 국가가 한 번도 해 보지 못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세계 주보》 1962년 7월 24일 호)

현 시기 제국주의 부르죠아 사상 조류들이 매우 각이하고 심지어 그 리론이 서로 대립되고 있는 듯한 외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에서 반공산주의적 경향이 더욱더 강화되고 날로 악랄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모두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것은 현 시기 제국주의 부르죠아 사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미제를 위시한 제국주의 부르죠아지들은 저들의 이데올로기 정책이 전면적으로 파탄되자 반공 사상에 더욱더 집요하게 매여 달리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그들은 공산주의를 비방 중상함으로써 제국주의 부르죠아 사상을 옹호할 수 있으리라고 망상하고 있다.

반공산주의, 반맑스주의—이것은 죽어 가는 자본주의를 옹호하려는 현대 부르죠아 정치 철학의 중요 방향으로 되고 있다. 제국주의 부르죠아 사상가들은 반공산주의 기치 하에 사회주의 제도와 사회주의 나라 인민들에 대한 중상과 도발을 일삼고 있으며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중상 외곡하고 있다.

제국주의 부르죠아지는 반공산주의 사상을 다만 사회주의 나라와 공산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데만 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 인민들을 횡포하게 억압하고 착취하며 그들을 반대하는 중요한 사상적 무기로도 리용하고 있다.

세계 반동의 중심지인 미국에서는 반공산주의 기치 하에 《맥카란법》이나 《스미스법》과 같은 2 대 반공법이 전형적인 국가법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 법령은 일체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고 사회주의, 평화, 민족적 해방을 주장하는 정당에게 《유죄》의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동시에 이것을 통하여 인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무참히 유린하고 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이데올로기 투쟁에서 가장 중요하게 노리는 것은 로동 운동을 내부로부터 분렬시키며 공산주의 대렬 내에 리간을 조성하며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들은 로동 운동 내에 각종 기회주의적 사회 개량주의적 사상들을 류포시키고 있다.

오늘 제국주의 부르죠아지는 로동 운동을 분렬시키기 위하여 사회 민주당 우익 간부들을 공공연히 제국주의와 군국주의 진영으로 끌어 들이고 그 힘을 빌어 사회 민주당의 기구를 지배하고 있다.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사회 민주주의자들은 22 개국에서 정부를 만들었거나 혹은 정부에 참가하였다. 불란서 사회 민주당 우익 지도자 기 몰레는 정부의 각료가 되자 독점 부르죠아지의 특권을 고수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식민지 전쟁의 불'길을 일으켰고 알제리야 인민에 대한 전쟁을 확대하였으며 개인 독재 수립을 원조하였고 불란서에서 민주주의의 교살자로 행동하였다.

영국 로동당, 벨기, 화란, 이태리 기타 사회 민주당 지도자들도 이렇게 행동하였다.

현대 제국주의 부르죠아지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을 파괴하기 위하여 찌또 도당을 비롯한 현대 수정주의자들을 리용하고 있다. 수정주의—이것은 로동 운동 내에서의 반공산주의 사상, 제국주의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의 특수 형태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찌또 도당을 비롯한 유고슬로비야의 수정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모든 분야에 걸쳐 프로레타리아 세계관을 부르죠아 사상에 순응시키려 하고 있으며 국가 기구를 포함한 모든 기구를 리용하여 제국주의 부르죠아 사상을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제국주의 부르죠아지들의 앞잡이라는 것을 날로 더욱 폭로하고 있다. 동시에 이것은 제국주의 부르죠아지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반대하여 얼마나 교활하게 발악하고 있는가를 보여 준다.

그러나 죽어 가는 제국주의 부르죠아 계급이 아무리 최후 발악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힘도 사회 발전 법칙을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맑스-레닌주의의 백전 백승의 사상의 승리를 결코 막을 수는 없다.

신식민주의에 복무하는 《후진국 개발론》

손 준 식

《후진국 개발론》은 제 2 차 세계 대전 후 식민지 체계가 전면적으로 붕괴되여 가는 력사적 시기를 배경으로 하여 발생하였다.

이 《리론》은 후진 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적 착취와 예속을 은폐하며 그것을 더욱 《합리화》하는 리론적 도구로 복무하고 있다. 즉 이 《리론》은 식민지 체계의 전면적 붕괴에서 치명적 타격을 받은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 또는 그 예속에서 갓 해방된 나라들에 대하여 자신을 이 나라 인민들의 《벗》으로 가장하면서 《경제 개발을 협조》한다는 기만적 구호의 표방 하에 이 나라 인민들에 대한 경제적 략탈을 계속하려는 새로운 식민주의론이다.

오늘 이 《리론》은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 나라들에 널리 류포되고 있으며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리론》에 대한 비판은 제국주의, 특히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폭로함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진다.

* *

원래 제국주의는 식민지 인민들에 대한 수탈을 통하여 막대한 식민지 초과 리윤을 짜내였으며 이것으로써 비만하여졌다. 사실상 식민지는 제국주의의 중요 후방이다. 그러나 제 2 차 세계 대전 후 식민지 인민들의 앙양된 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의 후방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사회주의 진영의 형성과 그의 장성 강화, 식민지 인민들의 정치적 각성의 제고, 제국주의 렬강 간의 내부 모순의 첨예화 등은 식민지 체계의 전면적 붕괴 과정을 가일층 촉진시켰으며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의 새 시대를 열어 놓았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식민지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은 급속히 앙양되였으며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의 세찬 불'길속에서 제국주의자들이 쌓아 놓은 보루들이 련'이어 무너지고 아세아, 아프리카의 도처에서 많은 독립 국가들이 탄생하였다.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에서 일어 난 이와 같은 새로운 전환은 식민지에 기생하여 살아 왔고 식민지 착취에서 비대해진 제국주의자들에게 결정적 타격으로 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정책이 총 파탄되고 식민지가 완전히 상실될 위험에 직면하게 되였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사활적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력사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제국주의자들은 언제나 력사의 무대에서 스스로 물러 나려 하지 않으며 자기의 중요 후방인 식민지를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형식상의 독립을 주고는 경제적 착취를 계속할 음흉한 방법을 택하였다.

경제적 자립이 없이는 완전한 독립이란 이루어질 수 없다. 식민지의 멍에를 완전히 벗어 던지기 위해서는 정치적 독립 뿐만 아니라 수백년 동안 그들을 괴롭힌 제국주의적 착취의 온갖 유물들을 철저히 쓸어 버리며 경제적 자립을 쟁취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 나라 인민들은 경제적 자립을 위한 확고한 념원으로 불타게 되였으며 진정한 독립을

위하여 일떠선 그들의 줄기찬 투쟁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경제적 자립을 열망하는 이 나라 인민들에게 있어서 사회주의 경제 제도의 우월성은 큰 고무적 힘으로 되였다. 더우기 과거에 자기들처럼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 처지에 놓여 있던 조선이나 중국이 사회주의 제도를 수립하고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꾸려 가고 있는 모습은 사회주의의 견인력을 더욱 강화시키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사회주의에로의 동경과 지향을 더욱 장성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사회주의 혁명은 제국주의의 압박을 받고 있는 모든 나라 식민지와 모든 국가의 투쟁으로 될 것이며, 국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예속 국가들의 투쟁으로 될 것이다.》(레닌 전집, 제 30 권 180 페지)라고 한 위대한 레닌의 예언이 도처에서 실현되기 시작하였다. 이제 와서는 미제도 《…한두 개 아닌 미개발 국가가 후진 사회 근대화의 곤난성과 실패에 기인하여…공산주의를 용인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데 대하여 자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무너져 가는 식민지 체계를 재편성하고 이 나라 인민들의 사회주의에로의 강력한 지향을 막기 위하여 광분함으로써 그들이 처한 위기를 수습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후진 국가들에 대한 착취와 예속을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형태로 유지하기에 광분하였다. 이제 와서는 단순히 무력과 공갈에만 매달릴 수 없게 되였으며 회유와 기만의 새로운 방법에 기초하는 것이 요구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새로 해방된 나라들의 경제에서 종래의 지위를 유지하고 경제적 《원조》의 미명 하에 새로운 식민지 초과 리윤을 짜내려고 하였다. 이리하여 나온 것이 신식민주의다.

신식민주의는 구식민주의와 본질상 아무런 차이도 없다. 신식민주의가 추구하는 본질은 《해방된 나라들의 경제에서 종래의 지위를 유지하고 경제적 〈원조〉라는 미명 하에 새로운 지위를 탈취하며 해방된 나라들을 군사 쁠럭에 끌어 들이며 이 나라들에 군사 독재 제도를 수립하고 군사 기지를 창설하는 데로 돌려지고 있다》(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의 성명)는 데 있다.

신식민주의의 이러한 침략적 본성을 은폐하며 《합리화》하는 리론적 도구로서 나온 것이 소위 《후진국 개발론》이다.

이 《리론》은 미국에서 먼저 발생하였다. 그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바로 미 제국주의는 현대 식민주의의 주되는 아성이며 지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리론》은 제국주의, 특히 미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을 은폐하며 식민지적 착취와 예속을 미화할 뿐만 아니라 인민들의 사회주의에로의 지향을 억제하기 위한 리론적 도구로 복무한다.

우선 제국주의 침략적 본성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 《리론》은 제국주의를 후진 국가 인민들의 《벗》으로 가장하는 《선진국》과 《후진국》에 관한 주장을 내놓았다. 즉 이 《리론》은 《선진국》과 《후진국》은 다만 자본의 대소, 공업과 농업의 비중, 혹은 인구 1 인당에 차례지는 국민 소득액의 대소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인 것처럼 외곡하면서 제국주의와 이 나라들 간의 적대적 모순을 은폐하여 나섰다.

또한 이 《리론》은 제국주의적 착취를 미화하기 위하여 후진 국가들의 《경제 개발을 협조》한다는 구실을 내놓았다. 그렇게 되면 경제적 자립을 열망하는 이 나라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무마하며 그것을 미끼로 자기들의 식민지적 착취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민들의 사회주의에로의 지향을 막을 수 있으리라고 타산하였다. 그의 구체적 표현으로서 1949년에 트루맨에 의하여 공포된 소위 《후진국 개발 계획》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미제는 《우리 계획에는 리윤을 위하여 타국을 침략하는…낡은 제국주의자들을 위한 자리가 없다.》고 하면서 《원조》를 통한 식민지 략탈 정책을 전면에 제기하였던 것이다. 거의 같은 시기에 영 제국주의자들이 내놓은 《콜롬보 계획》도 내용에서는 동일한 것이였다. 최근 케네디에 의하여 작성된 《진보를 위한 동맹》도 쿠바 혁명의 승리와 이에 따르는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식민지 민족 해방 혁명의 앙양에 겁먹은 미제가 이를 교살할 목적으로 《원조》의 탈을 쓰고 나온 것이다.

이와 같이 《후진국 개발론》은 무너져 가고 있는 식민지 체계를 유지 재편성하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후진 국가 인민들을 계속 제국주의 쇠사슬에 얽어매여 두기 위하여 《후진국 개발의 협조》라는 구호를 들고 나온 새로운 식민주의론이다.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　　✻

《후진국 개발론》의 기본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은 소위 《자본 형성》에 관한 문제이다.

《후진국 개발론》의 대표적 인물인 넉시는 《자본 형성》 문제가 《경제적 후진 국가의 개발 문제의 핵심》이라 하였고 로스토우는 후진국 개발의 기본 조건이 국민 소득의 10%를 《자본 형성》에 돌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들의 이러한 설교의 목적은 후진 국가 인민들로 하여금 식민지 해방의 가장 기본으로 되는 사회 경제적 변혁으로부터 《자본을 많이 형성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순수 기술적 문제에로 이목을 쏠리게 하자는 데 있다. 또한 그것은 《자본 형성》 문제가 바로 이 나라 인민들에 대한 수탈과 《원조》를 통한 예속과 략탈 및 군사비 조달을 위한 방패로 되게 하자는 데 있다.

우선 넉시의 주장을 보기로 하자.

그는 《후진국》 농촌에 존재하는 방대한 잠복적 과잉 인구야말로 《자본 형성》의 원천이라고 한다. 즉 그는 농촌 과잉 인구의 일부를 그들이 소비하던 량곡과 함께 떼내여 그것을 《후진국》 경제 개발의 자본으로 삼으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농촌 과잉 인구의 일부를 떼낸다고 하여도 농업 생산에 지장이 생기지 않으며 또한 그들이 농촌에서 떠나게 되면 그들이 소비하던 식량은 《잉여곡》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떼낸다 하여도 남은 농민들에게 더 부담이 될 것은 없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숨은 로동력과 식량을 공짜로 찾아 내여 《자본 형성》을 한다는 것이며 이것을 그는 《저축 잠재력》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잉여곡》이란 존재하지도 않는다. 원래 식민지 또는 그 예속에서 새로 해방된 나라 농민들은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조차 없어서 초근 목피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형편에 놓여 있으며 그의 일부가 농촌에서 떠난다고 하여 그 어떤 《잉여곡》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바로 이런 처지에 있는 농민들에게서 일'손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식량마저 떼낸다는 것은 결국 농민들에 대한 수탈의 강화를 의미한다. 더우기 그는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식량을 내놓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징발》이 필요하다고까지 말하고 있으니 농민들에 대한 수탈의 강화를 위하여 이 이상 더 어떻게 복무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넉시의 주장은 농민을 희생으로 하여 《자본 형성》을 하자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것은 소위 자본의 시초 축적과 상통한다. 맑스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자본가들은 자본주의 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자본 축적을 농민들에 대한 수탈을 통하여 이룩하였던 것이다. 다만 넉시의 경우에는 그것이 보다 반인민적인 성격을 띠고 있을 뿐이다. 즉 자본주의 경제의 발생 발전이 자본의 시초 축적을 통하여 달성되였다면

넉시의 《자본 형성》은 오늘날 미제의 지배 하에 있는 나라들에서 군사비 조달을 위한 수탈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리용되고 있다는 데 있다. 보는 바와 같이 넉시의 《자본 형성》이란 결국 제국주의자들의 최대한의 리윤 추구를 충족시키자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례컨대 오늘 남조선에서는 《자본 형성》이 소위 《경제 개발》을 위한 《내자 조달》의 미명 하에 세금 징수, 인플레, 공채 발행, 강제 저축 등을 통한 인민들에 대한 수탈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되고 있으며 특히 동족 상쟁을 위한 방대한 군사비 조달의 침략적 목적을 은폐하는 방패로 되고 있다.

《후진국 개발론》이 《자본 형성》을 기본 문제로 제기한 것은 후진 국가 인민들에 대한 내부 수탈의 강화를 위해서만은 아니다. 중요하게는 미제의 《원조》 정책을 《합리화》하자는 데 있다.

이 《리론》은 《후진국》이란 자본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애써 《내자 조달》을 해도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마련할 수 없으며 결정적으로 외자 즉 제국주의적 《원조》와 사자본 도입에 의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하자면 《원조》는 경제 개발을 위한 《자본 형성》의 기본 요소라는 것이다. 보는 바와 같이 이 《리론》은 《원조》를 순수한 생산 자본의 투하인 것처럼 외곡하고 있으며 심지어 넉시는 잉여 농산물 형태로 되는 미국 《원조》도 곧 생산 자본의 일 요소라고 말하고 있다.

《원조》는 후진 국가들에 대한 독점 자본 수출의 한 형태이다. 그런데 그것이 그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한 《자본 형성》의 기본 요소라고 하는 것은 리론적 모순이며 력사적 사실에 대한 외곡이다.

제국주의는 바로 자본 수출을 통하여 식민지에 대한 착취와 예속을 마음껏 감행하여 왔다. 그것은 혹은 대부 자본의 형태로, 혹은 생산 자본의 형태로 진행되였다.

그러나 그 형태가 어떻든 간에 제국주의자들은 자본 수출을 통하여 수출된 그 자본의 몇 십 배에 달하는 막대한 식민지 초과 리윤을 이미 짜내였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식민지의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형성시켜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빼앗았던 것이다.

사실상 제국주의는 자본 수출을 통하여 식민지 인민들의 피땀을 짜내고 그것으로 하여 비대하여졌다. 레닌이 《자본 수출은 기생의 자승》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것을 념두에 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본 수출은 식민지를 더욱더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력사적 사실은 외국 자본에 의하여 자립 경제를 이룩한 나라를 알지 못한다.

제 2 차 세계 대전 후 새로 나온 제국주의적 《원조》도 본질에 있어서는 자본 수출이다. 오늘 이 자본 수출은 여전히 식민지적 착취의 기본 수단으로 되고 있다.

제국주의적 자본 수출이 《원조》의 미명을 띠게 된 것은 우에서 본 바와 같이 식민지적 착취를 은폐하기 위하여 나온 교묘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원조》의 미명을 띠였다고 하여도 자본 수출의 본질은 바꾸어질 수 없으며 더우기 그것이 식민지 경제 개발의 요인으로는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조》는 그 대부분이 《자본 형성》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이 직접적 《군사 원조》이며 또한 그것은 많은 경우에 잉여 상품의 강매와 그의 판매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상품을 동반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조》

는 후진 국가들에서 《자본 형성》을 이룰 수 없으며 오히려 그 나라를 상품 시장화하고 민족 산업을 더욱 예속 파괴시킴으로써 자체의 《자본 형성》을 저애할뿐만 아니라 축감시키고 있다.

이처럼 《후진국 개발론》은 현대 제국주의자들의 기본 착취 수단인 《원조》의 본질을 은폐하며 《합리화》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신식민주의에 복무하는 《후진국 개발론》의 반동적 본질이 가장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제국주의적 《원조》를 식민지 경제 개발의 기본 요인으로 외곡하는 《후진국 개발론》의 반동성과 기만성은 《원조》를 받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서 나타나고 있거니와 특히 남조선에서 뚜렷이 증명되고 있다.

미제는 《원조》를 미끼로 남조선의 경제적 명맥을 장악하고 있으며 남조선을 식민지로 예속시킬 정치적 지배의 공간을 자기 수중에 틀어 쥐고 있다. 무엇보다 《원조》 물자 반입에서 소비재와 잉여 농산물의 비중을 크게 함으로써 남조선에서 민족 산업의 발전을 억제하며 자기들의 상품 판매 시장으로 얽매여 두고 있다. 남조선에서 소비되는 중요 공업품의 70~80%와 중요 원자재의 85%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미제는 《원조》 자금을 괴뢰 정부의 재정 자금으로 혹은 은행을 통한 융자금으로 투하함으로써 남조선의 재정 금융을 송두리째 통제 관리하고 남조선 경제에 대한 지배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미제의 이러한 지배는 남조선의 공업과 농업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그 자립적 기초를 더욱 박탈하고 있다. 즉 기계 공업은 공업 총 생산액의 5%에 불과하지만 경공업은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리하여 남조선 경제는 발전은 고사하고 파탄의 일로를 걷고 있으며 그것은 군사 《정권》의 정치적 지반을 뒤흔들게 하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후진국 개발론》의 또 하나의 반동성은 《경제 개발》이니, 《자립 경제 수립》이니 하는 간판 밑에 락후한 농업국으로 계속 남아 있게 하려는 데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후진국에서의 중공업 건설을 반대하고 농업을 위주로 한 경제 발전을 설교하고 있는 데서 똑똑히 나타나고 있다. 이 《리론》에 의하면 우선 《후진국》에서는 공업보다 농업이 로동 생산 능률을 더 빨리 장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을 전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업 경리의 령세성과 농업 기술의 락후성을 가진 후진 국가의 경우에 있어서 공업 발전에 기초하지 않는 농업의 로동 생산 능률이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사실상 매개 나라들은 자기들의 유리한 자연적 조건에 기초해서 사회적 분업을 분담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본주의적 분업을 《합리화》하여 나섰던 반동적 《비교 생산비설》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이 나라들을 영원히 락후한 농업국으로 남아 있게 함으로써 제국주의를 위한 농업 원료 원천지로, 상품 판매 시장으로 보존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이 《리론》에 의하면 《후진국》에서 첨예한 성격을 띠고 있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공업보다 농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중공업은 기본적으로 손 로동을 쓰지 않고 선진 기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을 많이 소비하는 반면에 로동자들을 적게 쓰지만(따라서 실업자들을 많이 흡수하지 못 하지만) 농업이나 중 소 공업은 주로 손 로동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오늘 후진 국가들에서 실업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 나라에 경제적 토대가 없는 데로부터 생산이 축감되고 일'자리가 적은 데 있으며 그렇게 되는 것도 기간 산업 즉 중공업 기지가 없는 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락후한 나라들에서 실업 문제가 해결되자면 정상적이고도 급속한 생산 장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공업 기지가 튼튼히 꾸려져야 하는 것이다. 중공업 기지가 축성되면 자립 경제의 토대가 마련되며 그것은 농업의 급속한 발전과 실업의 해결을 가져 오게 된다. 따라서 자립 경제의 수립은 첫째 가는 과업으로 제기된다. 그러나 《후진국 개발론》은 바로 이것을 반대하는 리론적 도구로 되고 있다.

《후진국 개발론》이 실업 구제 문제를 운운하게 된 진의도는 다른 데 있다.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에게 이 나라 인민들의 육체적 로동을 마음 대로 혹사할 수 있게 하는 리론적 근거를 주자는 데 있다. 이것이 남조선에서는 1958년부터 실시된 소위 《지역 사회 개발 운동》의 형태로 구체화되였다.

이 《운동》은 농촌 과잉 인구를 구제하며 농업을 발전시킨다고 하면서 남조선 농민들을 도로, 언제와 창고 건설 등 군사적 성격을 띠였거나 지주, 부농의 리익에 부합되는 공사들에 농민들을 동원시켰다. 지어 교회당 건설에까지 농촌 문화 건설이라는 미명 하에 농민들의 강제 로동이 《합리화》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진국 개발론》이란 미제의 략탈적 본성을 은폐하며 식민지 정책을 정당화하는 새로운 식민주의론이다.

오늘 《후진국 개발론》의 반동성과 기만성은 날이 갈수록 폭로되고 있다.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은 세계 도처에서 반대 배격 당하고 있다. 남조선의 출판물도 미제의 《원조》 정책의 반동성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경제의 대외 의존도만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경제적 자립이 없이는 정치적 독립도 없》(2월 3일 부 《한국 일보》)다고 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 인민들을 마음 대로 략탈 지배하던 시기는 영원히 지나 갔다. 계속 앙양되는 식민지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 제국주의 렬강간의 내부 모순의 첨예화, 이 모든 것은 《후진국 개발론》의 파탄을 촉진시키고 있다.

더우기 이 《리론》은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리론적 모순으로 하여 이미 발생 첫날부터 파산의 운명을 지니고 있다. 소위 《원조》의 간판 밑에 착취를 해야 하는 것 만큼 그 어떠한 원조도 있을 수 없는 것이요, 《경제 개발》을 운운하나 그것은 식민지 경제 체계의 유지를 목적하는 것만큼 그 어떤 자립 경제도 될 수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리론》은 더욱더 세계 인민들로부터 철저히 반대 규탄을 받고 있으며 식민지 경제 체계의 완전한 청산과 제국주의의 멸망에 따라 그의 파산도 가일층 촉진될 것이다.

작가와 생활 체험

천 세 봉

작가에게 있어서 생활 체험이 주요하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리해되고 있는 사실이다. 생활을 떠난 문학 창작이란 있을 수 없다. 동서 고금의 훌륭한 문학 작품들은 례외 없이 생활에 대한 깊은 리해에 기초하고 있다.

현 시기에 작가들이 생활 체험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우리 문학의 예술적 형상 수준을 결정적으로 제고해야 할 문제와 관련된다.

우리 문학의 생활력은 전적으로 생활 반영의 심오성에서, 철두철미 인민적이며 계급적인 당성 원칙에서 흘러 나온다.

철저하게 당적이며 인민적인 우리 문학의 힘은 인민의 지향, 그들의 정신 생활을 풍부하게 반영하는 데서 발현된다. 인민들의 지향과 정신적 요구를 떠나서 문학의 진정한 생활력을 생각한다는 것은 공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사회주의 건설의 급속한 발전, 기술 문화 혁명의 성과적 수행과 함께 문명하고 풍요한 생활을 향유하게 된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문학에 대해서도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작가인 우리들은 가장 지혜로운 독자들을 위해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긍지를 가져야 하며 자신의 책임감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자들은 우리 문학에 있는 비록 적은 결함이라도 용허하지 않으며 문학이 응당 대답해야 할 많은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 문학의 성과가 크고 훌륭한 작품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전진하는 생활의 요구에 비하여서는 불충분하다는 사실 또한 인정해야 한다.

부분적으로는 서둘러서 떤, 여물지 않은 과일과도 같이 설 익은 작품도 가끔 나타난다. 그리하여 우리의 일부 작품들은 독자들을 감동시킬 대신에 직선적인 《정치 설교》와 《경제 기술 문제의 해설》이 많다는 데 대한 항변을 받아 온다. 그러한 해설과 설명이 많을 때 문학 작품의 생명으로 되는 형상적 기능에 대해서는 말할 수조차 없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구체적 형상이 없이 직선적인 설명과 해설을 가할 때에는 매 작품들의 실제상 구별이 없어지고 류사한 도식을 낳게 한다는 것도 창작 정황이 말해 주는 진실이다. 실지로 우리의 시편들과 단편 소설들만 본다 해도 매 작품의 성격을 구분하기 어려운 류사한 작품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품들에서 매력 있는 산 주인공의 형상을 바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우리의 독자들은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상식의 기록을 문학 작품에서 요구하지 않는다. 독자들은 문학 작품에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감정 세계의 발현을 요구하며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고무적 힘과 용기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작가 자신의 정신 세계가 우선 그와 같은 높이에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작가 자신이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투쟁에서 힘과 용기를 부여할 수 있는 높은 정신 세계와 실생활에 대한 깊은 리해를 가짐이 없이 독자들의 요구에 수응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생활에 있는 긍정적 성격의 위훈을 알지 못 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인간 관계의 운동 발전을 보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의 첨예성을 외면하고서, 생활에 있는 절절한 애정 륜리 세계를 리해하지 못하고서 그 모든 것에 상응하는 주제의 작품 창작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 문학이 극복해야 할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원인의 중요한 측면이 작가들의 생활 연구가 부족한 때문이라는 것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사정으로 해서 실생활 속에 더욱 깊이 침투해야 할 문제가 절실하게 제기된다. 기성 지식과 좁은 체험의 테두리 안에서 낡은 상식을 되풀이하며 고식적인 형식의 변종을 《창안》해 내는 것으로서 《예술 탐구》의 흥분 속에 잠겨 있을 시기는 지나갔다.

실생활은 보다 웅건하고 결정적이고 보다 서정적인 작품 창작을 요구하며 그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주고 있는바 독자들은 우리 작가들에게서 그의 시급한 실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 작가들이 생활의 요구를 리해하는 것이며 생활 자체의 법칙과 본질을 개념과 론리로써만이 아니라 형상적으로 작가 자신의 감성으로써 깊이 감득하여야 하는 것이다.

실생활에 대한 깊은 침투, 심도 있는 생활 체험은 작가들에게 생활의 구체적 측면들을 알게 할 것이며 보다 더 다양하고 보다 더 감동적인 형상 창조의 가능성을 열어 줄 것이다.

* *

문학을 가리켜 《인간 심리의 력사》 《인간학》이라고 부르는 사정을 리해할 때 구체적 인간의 구체적 심리, 그의 변화 발전의 력사를 깊이 통찰하지 않고서는 문학 창작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사회주의 건설의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여 비상한 속도로서 전진하고 있는 우리의 생활은 또한 사람들의 정신 세계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 오고 있다.

우리 문학 앞에는 생활의 전진에 상응하는 웅대한 서사적 화폭을 제시할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업이 제기되고

었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 제 4 차 대회 보고에서 《도처에서 기적들이 일어 나고 모든 사람이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변하고 있으며 천리마의 대진군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생동하게 묘사하며 시대의 영웅인 천리마 기수들의 전형을 창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라고 하셨다.

우리 작가들이 이 교시를 창작 실천으로서 관철하는 데는 오직 생활 속에 깊이 침투하는 길 이외에 딴 길이 없다.

시대와 그 주인공들을 알지 못 하고 시대적인 전형을 창조한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작가의 참다운 작업은 항상 생활 현상과 인간 성격의 일반적 의의를 보는 대로 적고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을 흐르는 진실을 그리는 것이다. 이것은 작가가 생활 현상과 인간 성격의 일반성이 아니라 성격의 구체적 특징을 파악하며 생활 세부의 미묘한 변화 속에서 시대적인 큰 사상을 포착하는 데서만 가능하다.

작가에 따라 생활에 침투하는 구체적 방도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떤 방도를 막론하고 작가가 자기의 주인공들과 고락을 같이 하며 운명을 같이 하는 적극적 립장에 서게 되는 때라야만 비로소 생활 긍정의 힘 있는 사상과 정열이 풍만하게 발현되는 형상 창조가 가능할 것이다.

작가는 생활 자료를 정밀하게 연구하되 확고하게 인간 심리의 내면적 흐름을 깊이 통찰하며 그의 운동 발전 및 인간 호상 관계의 모순 충돌의 력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인간 연구의 립장에 서는 것이 주요하다.

일부 작품에 잔존하고 있는 기록주의와 도식주의적 경향의 발로가 주로 생활 현상에 대한 피상적 관찰에 기초하며 생활 자료의 라렬과 해설에 주력하는 결과이라고 할 때 그 진정한 원인의 한 측면은 인간 생활 침투가 빈약한 데로부터 온다는 것을 심중하게 리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가끔 공장 혹은 농촌에서 오래 생활한 작가들과 담화하면서 그가 소개하는 직장 혹은 작업반에 대한 이야기가 해당 부문의 기술 일'군 이상으로 해박한 전문 지식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고 놀라게 되는 경우가 있다.

작가들이 공업 관리와 경제 운영의 구체적 문제들, 기술 혁신의 구체적이고도 세밀한 내용을 깊이 아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익하며 필요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설명하고 있는 직장과 작업반에서 당신을 흥분시키고 있는 인간 문제는 무엇이며 당신이 등장시키려고 하는 주인공은 어떠한 정신적 특징으로서 동시대의 다른 주인공들과 구별되는가? 당신의 주인공의 비할 바 없이 아름다우며 비할 바 없이 위대한 힘은 어떠한 정황, 어떠한 국면, 어떠한 심리적 체험을 통하여 실현되는가?에 대해 대답하지 못한다면 모든 전문적 지식들이 소용 없는 것으로 되고 마는 것이다. 왜냐 하면 문학은 공업 관리와 경제 기술의 구체적 내용을 해설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술 혁신의 명수나 또는 위대한 발명을 수행한 과학자의 생활을 묘사하면서 그러한 주인공의 구체적 활동, 구체적 로동 정황을 주요하게 묘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묘사의 진정한 목적은 기술 공정과 과학적 발명을 해설하려는 데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한 임무는 기술과 과학의 전문가들이 담당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학은 심리적 체험의 진실한 추구로서 감정에 호소하며 구체적인 산 인간 성격의 창조를 지향하며 생활의 구체적 모범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의 생활 체험은 구경 인간 심리의 연구에 귀착된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생활의 합법칙적인 발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도 구체적인 인간 심리의 연구에 기초하여야만 작가의 사업으로 될 수 있다.

작가의 생활 체험은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혹은 생활 자료의 분석 연구에 기초하건 간에 항상 생활 현상의 본질을 전체적 련관 속에서, 력사적 구체성 속에서 리해할 것을 요구한다. 기계 공장에서 생활하는 작가는 평생 기계 공장에 대해서만 쓰게 되고 방직 공장에서 생활하는 작가는 방직 로동자들에 대해서만 쓰게 된다고 리해한다면 생활 체험의 의의를 감소시키는 협소한 견해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창작 경험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작가는 한 시대에서만 생활하지 않는다. 작가는 동시대인과 함께 생활하며 또한 력사적 과거의 주인공들과 생활하며, 생활의 미래까지도 함께 통찰하며 함께 체험한다.

만일 작가의 창작이 몸으로 직접 체험하였고 눈으로 목격한 사실에 의존하여서만 이루어진다고 리해한다면 문학 창작의 가능성이 얼마나 협소해지겠는가? 생활을 리해하는 현명한 사람은 하나를 보고 열을 알게 되며 생활을 리해하지 못 할 때에는 열을 보고도 단 하나의 진실도 알지 못 하게 된다는 말은 교훈적이다.

작가들이 공장, 기업소, 어장과 탄광, 협동 농장에 생활 근거지를 정하고 장기적인 생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은 해당 부문의 전문 작가로 되기 위해서인 것은 결코 아니다. 작가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선 로동 계급의 혁명적 사상 감정의 체득이며 당 정책의 위대한 생활력을 실생활 속에서 인식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일정한 생활에 대한 깊은 리해에 기초하여서만 생활 정황을 진실하게 반영할 수 있으며 그 정황 속의 주인공들을 생동하게 묘사하게 되리라는 것은 리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고 작가의 생활 체험이 어느 한 테두리 속에 국한되거나 매 순간 과거로 되여 가고 미래와 련결이 되는 그 측면을 생각지 않고 오늘이라는 현상에만 매여 달려 사실의 뒤꼬리를 분주히 찾아 다니는 것으로 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어느 한 공장이나 어느 한 협동 농장에서 생활한 작가가 장편이나 한 편 쓰면 쓸 것이 없다는 말을 가끔 듣는다. 그래서 어데서 영웅적인 사실이 발생했다면 창작 소재를 얻으려고 분주히 그리로 달려 간다. 그 창작이 끝나면 또 다른 영웅적인 사실을 찾아 간다. 물론 시대의 전형과 사실주의적 일반화를 위해서 한 주제의 소재를 광범한 생활 자료 속에서 추출하기 위해 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안다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소재의 고갈로 사실의 뒤꼬리만 따라 다니는

것은 주마간산(走馬看山) 격으로 생활의 외피를 관찰하는 데 머무르게 될 것이다.

한 생활 단위에도 허다한 문학적 소재가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작가가 생활을 아는 심도이며 문학적인 소재를 찾을 줄 아는 작가의 형안이다. 문학적인 소재는 영웅적인 사건에도 있고 평범한 생활 속에도 있다. 작가의 눈이 예리하면 한 개의 평범한 사실에서도 큰 시대의 움직임을 반영할 수 있는 그 무엇을 감득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에 대한 리해가 깊고 인간에 대한 연구가 깊다면 작가는 비상한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의 세계를 구상하며 만나 본 일 없는 수 많은 인물도 능히 형상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레브 똘쓰또이는 《전쟁과 평화》의 시대에 살지도 않았으며 거기에 등장하는 500 여 명의 인물을 만나서 료해한 것도 아니였다.

생활 현상에 대한 피상적인 관찰과 일면적 인식에 기초하여서는 피상적이며 일면적인 작품 밖에 창작할 수 없다. 이것은 장편 소설 《전야에 봄이 온다》의 경험이 잘 말해 준다.

《전야에 봄이 온다》는 어느 한 지역에 있은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사실에 기초한건 나쁘지 않으나 작가는 사실을 전체적 련관 속에서 보지 않았으며 그런 결과 주인공들을 우리 시대의 전형으로 창조하지 못 하였다.

작가는 어느 한 공장의 크지 않은 직장을 중심으로 묘사하거나 혹은 협동 농장의 한 농산 작업반을 묘사하거나 또는 력사적 과거의 생활을 묘사하거나를 막론하고 현 시대 생활의 전반적 련관, 시대적 흐름의 본질을 깊이 파악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실주의 일반화가 불가능하며 시대적 전형 창조가 불가능하다.

각이한 성격의 인간 군상을 등장시키고 시대의 넓은 생활을 포괄하는 대형식의 서사 문학 창작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　　*

사실주의 문학은 항상 주제의 의의와 사상성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형상의 핵으로 간주한다. 허나 문학 작품에서의 사상성은 직선적인 해설과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문학 작품은 오직 형상으로써, 구체적 인간의 구체적 심리 체험으로써 독자들을 교양한다. 예술적 형상은 독자들을 교양하는 수단이며 무기이다.

생활의 운동 발전을 깊이 알고 생활적인 긴절한 주제의 탐구가 물론 주요하다. 그러나 만일 생활에서 포착한 진실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하는 형상적 기교를 체득하지 못 한다면 생활 체험 그 자체도 무의미한 것으로 될 것이다. 생활이 문학을 산생시키는 종자와 토양과의 관계와 같다면 예술적 기교는 열매를 맺고 무르익히는 기술과 같은 것이다. 잘 여물고 무르익은 열매를 따려면 비옥한 토양과 훌륭한 종자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열매가 될 때까지의 세련된 과학 기술과 로력이 필요하다.

선차적으로 생활을 깊이 아는 것이 필요하나 동시에 높은 예술적 표현 수단을 소유해야 할 것이다. 사실주의 문학이 요구하는 형상의 기교는 생활 현상의 생동한 묘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인류 문학의 긍정적 경험들이 말해 주고 있는 바와 같이 문학 형상의 진정한 의의는 생활 반영의 진실성에 있으며 참신한 표현 수법, 적절한 형식의 탐구에 있는 것이다. 예술적 형상의 진정한 의의는 항상, 시대 사상의 심오한 체현을 위한 새로운 발견으로 충만된 탐구적인 것이라는 데 있다.

예술 형상은 내용에 적응한 형식의 완성으로서 비로소 이루어진다. 우리의 적지 않은 작품들이 훌륭한 생활적 내용을 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적 형상의 완성을 기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결과 조잡한 미완성품을 내여 놓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문학에는 아직 기록주의적 잔재와 함께 도식주의적 편향으로 이야기체, 설명체의 작품들이 나타나고 있다. 기록주의가 생활적 진실과 예술적 진실을 기계적으로 동일시하고 생활에서 진행되는 것을 작품에 그대로 옮겨 놓음으로써 생활에 대한 일반화의 심도를 약화시킨다면 이야기체, 설명체는 조형성, 직관성, 묘사성을 자기의 본성으로 하는 사실주의적 형상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요는 설명과 해설이 아니라 생동한 형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작가는 지어 환경, 자연, 세태 묘사, 작가의 언어와 추정 토로에 이르기까지도 개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대답하기 위해서 작가는 일사천리로 붓을 채찍질 할 것이 아니라 한자 한자 땀을 흘리며 조각해야 한다. 설명과 해설은 안이한 방법이며 생동한 형상 창조는 어려운 방법이다. 하지만 우리는 당적 작가라는 높은 문학적 량심을 가지고 땀을 흘리며 지면을 채워야 옳을 것이다.

지금 우리 문학 앞에는 해결을 요구하는 절실한 문제들이 허다하다. 그것은 우선 사회주의 건설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제기되고 있는 문학의 묘사 범위와 주제 령역을 넓혀야 하는 문제, 서정적 스찔의 작품 창작 문제, 훌륭한 영화 연극을 위한 씨나리오와 희곡을 더 많이 창작해야 하는 문제들이다. 그 중에도 문학의 형상성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문제는 당이 우리 작가들 앞에 제기하고 있는 가장 긴절하고도 전투적인 과업이다. 문학 앞에 제기되고 있는 이 모든 긴절한 과업의 해결이 생활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밀접히 관련된다.

당의 직접적 배려에 의하여 공장, 건설장, 협동 농장들에 생활 근거지를 정한 작가들은 물론 우리들 모든 작가들이 문학 앞에 제기되고 있는 이 과업의 해결을 위하여 백방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우리 음악에서의 현대성과 민족적 특성의 구현

문 종 상

오늘 우리의 노래와 음악은 행복하고 보다 보람찬 생활을 향하여 질풍과 같이 내닫고 있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생활의 친근한 동반자로 되고 있다.

좋은 노래와 음악을 사랑하며 애창하지 않는 인민이란 없겠지만 특히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노래와 음악에 자기의 절절한 심정과 념원을 불어 넣으며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며 새 생활 개척에서 언제나 그것과 함께 전진하며 투쟁하여 왔다.

그러나 노래와 음악이 오늘과 같이 전체 우리 인민의 정신적 재부로 되여 본 때는 일찌기 없었다.

로동당 시대에 활짝 꽃핀 인민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노래와 음악은 백화 란만히 꽃피고 주렁진 열매를 맺고 있다.

총명하고 지혜로운 우리 조상들이 남겨 놓은 한량없이 아름답고 풍부한 음악 재보들은 새로운 생활과 함께 계속 부절히 발전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민요를 바탕으로 창작된 훌륭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음악은 우리 생활의 모든 곳에서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 잡고 천리마의 속도로 내닫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의 기세를 더욱 고무하고 있다.

이러한 노래와 음악들을 들을 때마다 조상 전래로 불리워 온 민요의 아름다운 가락에 토대하면서도 그것들로부터 구별되는 새로운 시대적 사상 감정을 거기서 감촉하게 된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음악의 혁신적 내용이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민요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의 노래와 음악이 현대의 사상 감정을 보다 원만히 표현하며 전투적이고 락천적인 우리 시대 사람들의 미감을 훌륭히 충족시켜야 할 긴절한 과업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를 보기로 하자.

*　　*

일찍부터 우리 음악은 락천성과 선률적 표현성, 선명성으로 특징적이였으며 그것으로 다른 나라 인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 음악의 락천적인 성격은 오랜 세월을 두고 구체적인 인민 생활에서 형성된 것이며 그것은 사회와 생활에 대한 인민의 락관주의적인 감수의 형상적인 응결품이다.

생활에 대한 우리 인민의 락관주의는 우선 로동에 대한 그들의 근면하고 성실한 태도와 련결되고 있었는데 우리 음악에서의 락천적인 성격도 우선적으로는 로동과 관련된 음악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창조적 로동에 대한 성실성과 근면성—이것은 조상 때부터 면면히 이어 내려 온 우리 인민의 고귀한 정신적 특질의 일면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조상들의 로동 애호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많은 노래와 음악들이 전해져 있다.

그것은 《농부가》, 《옹헤야》, 《농악》, 《배'노래》들만을 상기해도 충분할 것이다.

《긴 농부가》와 《잦은 농부가》의 두 개의 노래 련해곡인 우리 나라의 유명한 《농부가》는 《농사는 천하의 대본》이라는 우리 농민들의 높은 긍지감과 창조적 로동에 대한 희열감으로 가득차 있다. 우리는 선창자가 부르는 《에헤 에헤여 상사듸야…》를 듣고 있노라면 아름다운 삼천리 강산의 비옥한 농토 풍경, 자연을 정복하며 물질적 부를 창조하는 인간들의 긍지감, 감정의 넓이와 풍부성에로 끌려 들어 간다. 이 노래에서는 개인적인 것과 집단적인 것이 매우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이 노래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많은 민요들의 특질을 이루고 있다. 그러하여 《긴》, 《잦은》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여 서정적인 것과 군중적인 것이 잘 안배되여 있는 우리 민요의 형식 조성의 원칙도 여기에서 엿볼 수 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훌륭한 로동 가요와 음악들에서는 로동하는 사람들의 풍부한 정신적 세계—높은 긍지감, 로동의 희열이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에 기초한 사회에서 자연을 정복하며 사회를 전진시키는 창조적 로동이 로동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과거의 노래와 음악들에서 고된 로동에서 오는 쓰라린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들도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은 조금도 기이한 일이 아니다.

우리 나라에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영원히 청산된 그 때로부터 로동에 대한 사람들의 관계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바로 그 때로부터 로동은 진정으로 로동하는 근로자들의 기쁨으로 되였고 그것은 노래로 되였다. 《로동은 기쁨이며 노래라네》—오늘 우리 나라에서 로동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이보다 더 형상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해방 후 창조적 로동의 쩨마에 바쳐진 많은 노래와 음악들이 창작되였고 또 이 분야에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훌륭한 형상들이 출현하였는데 이런 노래들에서 과거 우리의 노래와 음악이 가지고 있던 성격적 특질들이 계승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생활 조건과 관련된 새로운 측면들로 보충되여 새로운 질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의 많은 노래와 음악들 중에서 《일터의 휴식》과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를 상기하면 이를 리해하는 데 충분할 것이다. 건설자들의 드높은 열정, 희열과 함께 로동에 대한 새로운 미'적 관계까지도 우리는 《일터의 휴식》에서

감축하게 된다. 여기서는 《장타령》적인 것이 놀라울 정도로 새로운 시대 감정에 융합되여 로동은 청춘이며 열정이라는 감정이 넘쳐 흐르고 있다.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에서는 작곡가가 당의 위대한 구상의 승리적인 구현을 경축하는 전 인민적 감정과 북받쳐 오르는 흥성흥성한 환희감을 놀라우리 만큼 형상적으로 전달하는 데 성공하였다. 작곡가는 흥성흥성한 전통적인 농악적인 것을 새로운 시대감에 훌륭히 유착시켰다.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는 해방 후 우리 음악이 거둔 가장 탁월한 성과들 중의 하나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락천적인 성격은 비단 로동을 주제로 한 노래들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창작 분야에 일관되여 있다.

최근 년간에 창작된 《천리마 달린다》, 《통일 렬차 달린다》와 같은 노래들의 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내닫고 있는 사람들의 기상이 훌륭히 표현되고 있다.

《신아우》 가락을 창조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천리마 달린다》는 마치도 공산주의 새 언덕을 향하여 서로 어깨를 겨누고 나아가는 대중들의 행진 대렬과 같다.

《통일 렬차 달린다》는 렬차가 남반부로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그 감격적인 기분을 표현하는 선률이 렬차가 달리는 듯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리듬에서 진실하게 표현되고 있다.

우에서 본 일련의 노래와 음악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질이란 무엇인가? 여기에는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이 십 리를 갈 때에 백 리를 달리는 시대적 정신, 시대적 호흡, 시대적 속도감을 진실하게 표현한 데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행 시기의 가요와 음악들에서 감촉할 수 없는 새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인민의 생활 감수의 락천적인 성격은 우리 나라 서정 가요와 음악에 특별한 명암을 부여하였다. 그리하여 예로부터 우리 음악에서 서정은 락천적인 것으로 이채를 띠였는바 여기에 우리 음악에서 서정성이 가지는 특질이 있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서정이라 하면 영탄적인 것, 애수적인 것, 비가적인 것을 상기한다. 실상 이러한 서정성은 19 세기에 일련의 나라들의 작곡가들의 창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물론 지난 시기의 우리 음악에서도 이러한 서정을 찾아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음악에서 서정이 가지는 중요한 특성은 본질에 있어서 청명하고 선명하며 락천적이라는 데 있다. 이러한 서정은 밝고 청명한 아름다운 우리의 조국 산천의 정경을 련상케 한다.

그리하여 조국의 자연과 생활에 대한 우리 조상들의 진실한 생활적 관계를 반영한 많은 노래와 음악들이 우리에게 전해져 있다.

정서적 진실성과 다정감, 청명한 성격과 아름다운 선률적 미는 이런 노래와 음악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 조상들이 생활, 로동에 대하여 항상 성실하고 진실하였으며 여기서 오는 인간 체험 세계의 풍부성에 기인한 것일 것이다.

우리의 풍부한 민요 유산들 중에서 《아리랑》과 《양산도》만이라도 상기해 보라. 물론 이런 노래들은 인간의 개성이 구속을 당하던 봉건적 관계 하에서 창작된 것으로서 그 속에는 그 어떤 애수적인 것이 약간 깃들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래들에서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것은 비관이 아니라 조국과 생활에 대한 긍정과 사랑에서 오는 가슴을 부풀게 하는 밝고 아름다운 감정 세계의 진실성이다.

우리 조국이 가장 암담한 시기에 처하였던 30년대에 창작되여 널리 애창되였으며 또 오늘도 계속 애창되고 있는 《조선 8경가》, 《울산 타령》, 《노들 강변》, 《처녀 총각》들을 상기하면 충분할 것이다.

에 금강산 일만 이천

봉마다 기암이요…

노래는 듣는 사람들의 심장에 아름다운 조국 강산에 대한 긍지감, 향토에 대한 무한한 사랑의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

이런 서정 가요들은 일제의 기반 하에서 온갖 민족적 모멸과 천대를 받아 왔으며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조국과 향토에 대한 사랑을 한시도 잊어 본 적이 없는 우리 인민의 그 고매한 정신적 특질을 진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우리 인민의 이와 같은 숭고한 정신 세계는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는 서정 가요들에서도 특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우리 조상들은 사랑 문제를 취급함에 있어서 결코 그것을 남녀의 단순한 애정 관계로만 보지 않았다. 우리 노래에서 사랑의 서정—그것은 보다 깊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련결되여 있다. 즉 사랑을 진정한 개성의 해방, 인간 생활의 자유와 행복에 대한 념원과 련결시켰던 것이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 가요에서 사랑의 서정은 사람들을 훌륭한 생활을 위한 지향성에로 충동한 것이다.

봉건적 질곡 속에서 혹은 일제의 강점 하에서 생활하여 온 우리 조상들은 잃어 버린 조국과 빼앗긴 생활을 찾으려는 절절한 심정을 토로한 서정 가요—로만스의 다른 세계도 우리에게 불러 주었다. 가요-로만스들에서 나타난 주되는 기분과 감정은 잃어 버린 조국에 대한 비통과 울분과 통절한 형상 세계이다. 비록 이런 노래들에서 애가적인 기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나 그것은 조국의 운명에 대한 생각과 관련된 것이며 인생에 대한 허무, 절망을 노래하던 류행가를 비롯한 반동적인 부르죠아적 가요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한 것이다.

그것이 사랑의 서정이건 혹은 조국 산천에 대한 비통한 서정이건 간을 막론하고 우리의 서정 가요에서 특징적인 것은 감정 표현의 진실성과 성실성이며 긴 호흡으로 류창하게 흐르는 선률적 아름다움과 표현성이다.

해방 후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사회적 관계에서 일어 난 근본적인 변화는 서정 령역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조건 지어 주었다.

《꾀꼴새가 노래하는 곳 사랑하는 내 고향일세…》의 밝고 류창하게 흐르는 선

률적 가락은 종달새의 노래마냥 고향 하늘에 울려 퍼지면서 사람들의 가슴을 부풀게 한다.

가슴이 활짝 트이는듯한 표현적인 선률적 가락을 타고 울려 퍼지는 《산 좋고 물 맑은 아름다운 내 나라…》를 들어 보라! 우리의 눈 앞에는 어느새 락원으로 화한 사회주의 조국의 온 정경이 안겨 오는듯 하다.

마치도 설화자의 다정한 이야기가 흥분된 연사의 열변으로 넘어 가듯이 발전하는 《내 고향 보천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사무치게 한다.

이러한 모든 서정 가요-로만스들은 제각기 독특한 형상적 매혹력을 가지고 사회주의 조국과 협동화된 고향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 세계를 노래하고 있다. 이 노래들은 저마다 천지 개벽한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에 대한 그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전달하고 있다. 이것은 진정한 인민의 조국에 대한 송가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우에서 주로 전후 시기에 창작된 서정 가요들을 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전후 시기에 비로소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가렬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창작된 《압록강 2천 리》와 같은 서정적 랑만의 노래와 샘물과 같이 맑은 우리 처녀들의 마음씨가 련상되리 만큼 표현적인 《샘물터》와 같은 노래들을 상기하면 우리의 서정의 성격에 대한 표상이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물론 우리 음악에는 《문경 고개》와 같이 조국의 운명에 대한 심오한 주정 토로에 기초한 《철학적인》 서정도 있다. 어쨌든 우리의 서정은 생활을 더욱 투철하게 내다 보게 하는 그런 《전망성》 있는 서정이며 부르죠아 음악에 특징적인 절망과 허무와 빠져 나올 수 없는 애수의 서정과는 털끝 만한 인연도 없다.

우리 음악에서 특징적인 락천성과 건전한 서정성은 전투적인 호소성이 강한 노래와 음악들에서도 절도 있게 서로 융합되여 그의 정서적 작용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음악의 이러한 특질은 《신아우》와 같은 락천적이고 전투적인 곡에서 찾아 보게 되지만 그것은 특히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창작된 혁명 가요에서 보다 훌륭히 발전하였다. 준엄한 싸움마당에서 창작된 혁명 음악이 그 당시에 투사들을 적들과의 무자비한 투쟁에로 불러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도 계속 우리 인민의 심장을 틀어잡고 그들을 영웅적 위훈에로 고무하는 그 힘은 바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강한 전투적 열정과 락천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여 있는 데 있다.

이러한 전투적 가요의 특질은 해방후에 창작된 노래와 음악에서 면면히 계승되여 새로운 시대 인간들의 기상을 반영하면서 더욱 풍부히 발전하고 있다. 합창곡 《오! 눈보라, 눈보라》와 《결전의 길로》와 같은 음악을 례증하면 그것을 충분히 리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합창곡 《오! 눈보라, 눈보라》를 듣고 있노라면 우리의 머리 속에서는 《고난의 40일》의 영상이 펼쳐져 나간다. 살을 에이는듯한 설한풍 휘몰아치는 만고의 밀림, 허리를 넘는 눈 속을 헤쳐 나가는 불굴의 투사들의 형상이 우리들의 심장을 혁명과 조국에 대한 불타는 열정으로 끓게 한다.

《결전의 길》에 담겨 있는 혁명적 열정, 원쑤를 무찌르는 투쟁에로 부르는 강한 호소성, 박력 있고 준엄한 정서는 가창자들에게 크나큰 감정을 북돋아 주며 그들을 영웅적 위훈에로 충동한다.

이러한 노래와 음악들은 매우 장엄하게 울리면서 태산이라도 떠밀듯한 우리 인민의 강직한 기상을 그대로 보여 주는듯하다.

* *

우리 음악이 발전하여 온 력사적 경험은 현대성과 민족적 특성이 융합되여 전일적인 유기체로 된 그러한 음악만이 그 시대의 추세를 밝혀 줄 수 있는 사상 예술적 높이에까지 올라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음악 예술에서의 민족적 특성 문제는 반드시 현대성의 견지에서 제기되여야 하며 또 현대성 그 자체는 기필코 민족적 특성을 자체의 유기적 구성 부분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1960년 11월 27일 및 1962년 3월 11일 교시가 있은 이후 시기에 우리 음악의 민족적 특성을 강화할 데 대한 관심이 더욱 비등되였으며 이 문제 해결에서 매우 의의 있는 일련의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또 창작-리론적 론쟁들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민족적 특성을 사회-력사적 견지에서 보지 못 하고 그것을 마치도 우리 음악에 영원히 고유한 불변의 속성처럼 생각하여 왔다.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음악 예술에서 민족적 특성은 오직 선률적 투, 그 인민 음악에 고유한 조식, 장단 등 형식적 수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서만 발현되는 것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어떤 고정 불변한 민족적 형식이 존재하는 것처럼 간주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러한 형식이 임의의 시대에 임의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왔다.

생활은 상기한 견해의 부당성을 남김없이 론박하고 있다. 실상 음악 예술의 민족적 특성이란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 생활의 발전에서 이미 낡고 고루한 것은 배제되며 생활적 내용에 의하여 발생된 새로운 속성들로 부단히 보충되면서 발전하는 것이다.

인민의 사회 력사적인 생활 조건이 달라지면 이에 따라 음악의 주제 사상적 내용도 새로와지며 또 이러한 새로운 주제 사상적 내용에 의하여 형식적 수단들과 수법들의 변화도 조건 지어지는 것이다. 해방 후 우리 나라 민족 음악 발전의 경험이 이것을 충분히 립증하여 주고 있다.

《강 건너 마을에서 새 노래 들려 온다》와 같은 창극 분야를 놓고 보더라도 이 작품은 우리 당의 협동화 정책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그의 관철을 위하여 불철 주야로 투쟁하는 새로운 인간 군상들이 그들의 생활적 바탕으로 되고 있는 민요적인 음조에 기초하여 형상화되였다. 그리하여 이 작품에서는 주제 사상적 내용과 음악 표현 양식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여 사실주의적인 형상

창조에 성공하였다. 바로 여기에 이 작품의 진정한 혁신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민족 음악의 기존 형식과 수단들과 수법들만으로써는 도저히 우리의 벅찬 천리마 현실을 진실하게 표현할 수 없게 되였다. 새로운 생활적 내용과 인민의 높은 문화 수준, 그들의 새로운 미학적 기호는 시대 감정에 적응한 새로운 민족 음악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현재 민족 음악 창작에서 화성, 복성과 같은 새로운 표현 수단들이 작품의 선률적 형상의 안받침으로 보충되여 전체적으로 작품의 형상적 세계는 깊어지고 풍부화되였다. 이것은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결코 민족 음악을 외곡하고 비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음악을 생활적 내용의 요구에 부합되게 새로운 속성들로 보충 풍부화하는 과정인 것이다. 창극 《홍루몽》과 새롭게 편곡되여 상연된 《춘향전》이 이것을 여실히 립증하여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작곡가들이 민요 유산을 대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민요의 고풍 그 대로를 답습하거나 복구 재생시키려 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진취적이며 락천적인 것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시대의 맥박으로 고동치게 하며 전진 운동의 정신적 추동력으로 되는 작품을 창작하는 립장에 서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기간 적지 않은 경우에 민요의 외면적인 형식 수단 수법들의 모방에 기초한 노래와 음악들이 인민의 공감을 불러 일으키지 못한 사실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여 음악 작품에서 아무리 우리 민요에 특징적인 개별적인 형식적 수단들과 수법들이 리용되여 있다 하더라도 작품이 우리 인민의 성격적 특질을 반영한 강한 사상 정신적 생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에 그것은 한갖 《민족적 의상》으로 단장한 절차례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인 민족적 기질로 맥박치는 강한 음악 형상—성격이 현대적이며 민족적이라야 하며 이외의 모든 것이 이에 복종하여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에게 주신 수상 동지의 교시 특히 11월 27일 및 3월 11일 교시를 관철하는 길에서 우리 음악은 커다란 창조적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음악가들은 현실 생활에 깊이 침투하여 높은 혁명적 열의로 충만된 우리 현대인들의 감정에 맞고 민족적 바탕에 확고히 립각한 음악 형상을 통하여 새 제도, 새 생활, 새 인간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음악으로 하여금 용기있고 희망차며 흥겹고 생활을 격동시키는 투쟁의 노래, 시대의 나팔로 되게 하고 있다.

《한일 회담》을 분쇄하기 위한 일본 인민의 투쟁

한 철 욱

최근 수년간 일본의 독립과 민주, 평화와 중립, 생활 향상을 위한 일본 인민의 투쟁은 급격히 앙양되여 왔다.

일본 인민은 1959~1960년 미 일 《안보 조약》을 반대하여 영웅적인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1961~1962년에는 《정치적 폭력 행위 방지법》을 조작하려는 미 일 반동 세력의 음모를 파탄시켰다.

미 일 《안보 조약》을 반대하는 력사적인 투쟁 이래 일본 인민의 반미 반독점 투쟁의 예봉은 《한일 회담》의 조속한 결속을 시도하는 미제의 책동과 관련하여 그것을 분쇄하는 데로 돌려지고 있다.

1960년 미 일 《안보 조약》을 강압적으로 개악한 미제와 일본 반동 지배층은 미 일 군사 동맹 체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한일 회담》의 타결을 발광적으로 촉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긴박한 정세 하에서 《한일 회담》을 반대하는 일본 인민의 투쟁은 1961~1963년에 걸쳐 급속히 확대 강화되고 있다.

* *

일본 인민은 《한일 회담》을 둘러 싼 엄중한 사태 발전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미 일 반동 세력과 남조선 괴뢰 도당의 범죄적 공모를 매 걸음마다 폭로하고 타격을 가하였으며 투쟁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계통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1960년 남조선 인민의 영웅적 4.19 항쟁에 의하여 리 승만 괴뢰 정권이 붕괴되고 남조선의 식민지 통치 제도가 총파산에 직면하게 되자 미 제국주의자들은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합세하여 위기를 수습할 목적으로 《한일 회담》을 촉진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동시에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미제의 아세아 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우기 위한 미 일 《안보 조약》을 구체화하는 책동의 일환이다.

일본 인민은 미 일 반동 세력의 이러한 침략적 책동에 대하여 《한일 회담》 반대 투쟁을 일층 적극화하는 것으로 대항하였다. 1961년부터 《한일 회담》을 분쇄하기 위한 일본 인민의 투쟁은 전국적인 범위에 파급된 련속적인 대공세로 전환하였다.

1961년 1월 일본 민주 세력의 공동투쟁 조직으로 결성된 《일한 회담 대

책 련락 회의》는 일본 인민을 《한일 회담》 반대 투쟁에로 조직 동원함에 있어서, 도처에서 일어나는 대중적 진출을 통일 행동에로 결속함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일 회담》과 관련한 정세는 1961년 5월 남조선에서의 《군사 정변》 이후 가일층 첨예하게 조성되였다. 1961년 6월의 케네디-이께다 회담에서 미 일 간에 《한일 회담》 속결 방침이 확정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모험적 책동이 로골화되였다.

미 일 반동 세력과 남조선의 친미 친일 군사 파쑈 도당의 《한일 회담》 조기 타결 흉모에 대처하여 1961년 10월부터 일본 인민의 《한일 회담》 반대 투쟁은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 섰다.

1962년 3월 드디여 《안보 반대, 평화와 민주주의 옹호 국민 회의》는 《한일 회담》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직접 담당할 것을 결정하였다. 《안보 조약》 반대 투쟁에서 형성된 전 민주 세력의 공동 투쟁 조직으로서 산하에 2천 여개의 지방 조직을 망라하고 있는 강유력한 《국민 회의》가 발동된 사실은 투쟁의 발전 행정에서 획기적인 자변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한일 회담》을 분쇄하기 위한 일본 인민의 투쟁이 수천 수백만의 대통일 행동으로,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한 전 인민적 운동으로 발전할 전망을 열어 놓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한일 회담 분쇄 전국 통일 행동》이 개시되였다.

특히 1962년 8월부터 《한일 회담》이 최종 단계에 넘어 가고 《대일 재산 청구권》 문제에 대한 비법적인 《합의》를 날조함에 이르러 일본 인민의 반대 투쟁은 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한일 회담》 반대 투쟁은 그 규모와 범위에 있어서, 그의 적극성과 지속성에 있어서 특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일본 인민은 수백만, 수십만 명의 전국적 범위의 통일 행동으로써 대공세를 반복하는 한편 수천 명의 지역적 범위의 투쟁을 도처에서 전개하여 련속적으로 타격을 가하고 있다.

《일한 회담 대책 련락 회의》가 활동한 1년 여의 기간에만 하여도 매번 수천 명 군중이 참가한 중앙 집회를 6 차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2 차의 전국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고 지방 조직을 형성하면서 수다한 지역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안보 반대 국민 회의》를 중심으로 한 《한일 회담 분쇄 전국 통일 행동》에는 매번 수십 만의 인민들이 참가하고 있다.

1962년에는 3월에 제 1 차 통일 행동, 5월에 제 2 차 통일 행동이 전개되였으며 10월에 제 3 차, 11월에 제 4 차, 12월에 제 5 차, 도합 5 차에 걸쳐 《한일 회담》을 분쇄하기 위한 전국적인 대중적 투쟁이 진행되였다. 12월 17일 《한일 회담 분쇄》 전국 대표자 회의에서 투쟁 경험을 총화하고 새로운 투쟁 대책을 결정한 데 기초하여 금년 1월 21일과 2월 20일에는 제 6 차 및 제 7 차 통일 행동이 전개되였다. 이와 함께 도꾜와 각 지방에서 지역 단위로 련일 대중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인민의 《한일 회담》을 반대하는 투쟁은 군사 기지 철거와 평화 옹호 운동, 민주주의적 권리와 생활 옹호를 위한 투쟁 등 모든 반제, 반독점 투쟁들과 밀접히 결합되여 보다 광범한 전 인민적 투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더욱 거대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최근 일본 인민의 대중적 진출이 있는 모든 경우에는 거의 례외 없이 《한일 회담을 분쇄하자!》는 구호가 제기되고 있다.

작년 10월 21일 일본 평화 위원회가 조직한 《10.21 통일 행동》은 《군사 기지 철거》와 《한일 회담 분쇄》를 2대 구호로 내걸고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도꾜 요꼬다 기지에 10만 명이 동원된 것을 비롯하여 23 개의 군사 기지들에서 100만 명이 움직인 이 투쟁은 《한일 회담》 반대 투쟁의 새로운 전진을 위한 중요 계기의 하나로 되였다.

일본 로동자들의 1962년 추기 및 1963년 춘기 공동 투쟁도 《한일 회담》을 반대하는 투쟁과 합류하여 이 투쟁을 더욱 전투적이고 적극적인 것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일본 로동 조합 총 평의회 산하 400만 명의 로동자들은 작년 10월 말부터 5 차에 걸친 추기 년말 투쟁 통일 행동에 참가하였다. 특히 투쟁이 고조에 달하였던 12월의 3~5 차 통일 행동에서는 경제적 제 요구와 함께 《한일 회담 분쇄》의 구호를 내걸고 진출하였으며 탄광 로동자들을 선두로 하여 매번 5만~10만 명의 로동자들이 국회 의사당을 포위하고 밤 늦게까지 시위를 단행하였다.

금년 2월 15일부터 개시된 춘기 공동 투쟁에서도 총평 및 중립 로련을 주력으로 한 610만 명의 로동자들이 《한일 회담 분쇄》를 주요 목표의 하나로 제기하고 일제히 궐기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한일 회담》 반대 투쟁은 투쟁 방법과 투쟁 형식에 있어도 능숙하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투쟁의 전반적인 앙양을 보장함에 있어서 지역적 범위의 성과들을 축적하여 전국적 범위에로 확대하며 소규모 투쟁을 무수히 조직하여 대규모 투쟁에로 발전시키며 선구적인 투쟁의 불꽃으로 료원의 불'길을 일으키면서 계속 전진하고 있다.

청원, 서명 운동에서 집회, 시위, 파업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투쟁 형식을 적용하며 또한 각이한 투쟁 형식들을 호상 련결시키고 있다.

일 조 협회는 《련쇄 집회》의 방법으로 《한일 회담》 반대 투쟁을 전국 각지에서 조직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1962년 1~3월 기간에 일 조 협회가 주동이 되여 일본의 남단과 북단에서 각각 출발하여 각 현들에서 계주식으로 《한일 회담 분쇄 전국 련쇄 집회》를 진행함으로써 각 지방에 대중 운동을 파급시켰던 것이다.

《안보 반대 국민 회의》는 또한 금년 초부터 1천만 명의 《한일 회담》 반대 서명 운동을 추진시키고 있으며 《현내 대행진》도 조직하고 있다.

《제 2의 안보 투쟁에로!》의 구호하에 《한일 회담 분쇄》를 목표로 기세 드높이 완강하게 전진하고 있는 일본 인민의 투쟁은 앞으로 더욱더 앙양될 것이다.

*　　*

일본 인민이 《한일 회담》을 반대

하여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한일 회담》은 조선 인민 뿐만 아니라 일본 인민의 운명과 일본의 장래에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며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지극히 위험한 책동이다.

미 극동 침략 정책의 직접적 산물인 《한일 회담》은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저애하고 조 일 량국 인민의 진정한 우호 친선을 방해하는 음흉한 책동일 뿐만 아니라 극동 지역에서 미제의 지휘 하에 일본 군국주의를 핵심으로 하여 침략적인 《동북 아세아 동맹》을 조작하려는 위험한 책동의 일환이다.

《한일 회담》은 또한 일본 반동 지배층이 조선 인민의 그 누구도 대표할 수 없는 미제의 침략 도구인 남조선 괴뢰 정권과 일방적으로 공모하고 있는 철두철미 비법적인 것이다.

침략적이며 비법적인 《한일 회담》은 일본과 일본 인민을 어떠한 길에 끌어 넣는가?

그것은 밖으로 일본의 대미 종속을 일층 강화하고 일본을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더욱 깊이 끌어 넣으며 미제의 적극 추동 하에 일본 독점 자본이 제국주의적 해외 팽창의 돌파구를 남조선에 개척하고 아세아 재침략을 위한 경제적 침략과 전쟁에로 확대하는 길이다.

그것은 또한 안으로 미 일 반동 세력이 일본의 재무장과 전면적인 재군국화를 촉진하며 일본 근로자들에 대한 미 일 독점 자본의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며 일본 인민의 민주주의적 자유를 말살하고 파쑈적 암흑 통치 질서를 재확립하는 길이다.

《한일 회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후과를 예견하는 동시에 투쟁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은 《한일 회담》을 분쇄하는 투쟁에서 선결 조건으로 되는 것이다.

《한일 회담》을 반대하는 일본 인민의 투쟁 대상은 일본 인민의 두 개의 원수인 미 제국주의와 그에 종속된 일본 독점 자본인바 량자는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특히 《한일 회담》의 주모자이며 원흉인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결코 《한일 회담》을 종국적으로 분쇄할 수 없다.

일본 공산당은 《한일 회담》을 분쇄하기 위한 일본 인민의 투쟁에서 전위대적 역할을 빛나게 수행하고 있다.

일본 혁명의 총 로선을 정식화한 네 폭의 붉은 기치—반제 반독점 민주주의 혁명의 기치, 민족 민주 통일 전선의 기치, 정치 사상 조직적으로 공고하고 강대한 일본 공산당 건설의 기치,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족 해방과 평화의 국제 통일 전선의 기치를 높이 추켜 든 일본 공산당은 일본의 독립, 민주, 평화, 중립, 생활 향상을 위하여 불굴의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일한 회담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은 당면한 가장 절박한 과제》라고 제시하였으며 적극적인 선전 선동과 조직 사업으로써 일본 인민을 투쟁에로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일 회담》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일본 공산당은 일본 사회당, 총평을 비롯한 일본의 전체 민주 세력과의 통일 행동, 통일 전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진지하고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안보》 반대 공동 투쟁 조직을 《일본에 있어서의 통일 전선 발전 과정의 구체적인 한 형태》로 규정하고 이것을 일본 인민의 최고의 무기로서 유지 발전시키는 데 각별한 주목을 돌리고 있다.

최근 년간 일본 인민의 《한일 회담》 반대 투쟁의 대중적 앙양은 일본 공산당, 일본 사회당을 위시하여 총평을 비롯한 로동 조합 조직들, 일 조 협회를 비롯한 국제 친선 단체들, 일본 평화 위원회를 비롯한 평화 옹호 단체들과 청년, 녀성 단체들을 포함한 일본의 모든 민주주의적 정당, 단체들의 공동 투쟁과 통일 행동에 기초하여 달성된 빛나는 성과이다.

특히 일본 사회당도 《한일 회담》을 반대하는 투쟁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국회에서의 원내 투쟁 뿐만 아니라 대중 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총평과 기타 진보적 로조 조직들도 《한일 회담》을 반대하여 적극 진출하고 있으며 일 조 협회는 항상 적극적이고 선구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일 회담》을 반대하는 공동 투쟁 조직으로서 《일한 회담 대책 련락 회의》는 투쟁의 발전 도상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겨 놓았으며 《안보 반대, 평화와 민주주의 옹호 국민 회의》와 산하 공동 투쟁 조직들은 전국적 및 지역적 통일 행동의 중심으로 되고 있다. 이리하여 일본에서의 《한일 회담》 반대 투쟁은 일본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하여 농민, 지식인, 청년 학생, 녀성 등 광범한 계급, 계층을 포괄하는 전 인민적 운동으로 확대 강화될 가능성을 조성하고 있다.

《한일 회담》을 분쇄하기 위한 일본 인민의 투쟁은 조선 인민을 비롯한 아세아 평화 애호 인민들과의 국제적 련대 투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일본 인민은 《한일 회담》 반대 투쟁을 통하여 자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과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를 위한 재일 조선 공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일 량국 간에 평화와 우의에 립각한 새로운 정상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일 회담》과 관련한 1962년 12월 13일 부 우리 나라 정부 성명은 광범한 일본 인민들 속에서 전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다.

《한일 회담》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일본 인민은 결코 고립되여 있지 않다.

조선 인민과 중국 인민을 비롯한 아세아의 모든 평화 애호 인민들, 사회주의 진영의 전체 인민들과 전 세계 진보적 인류는 싸우는 일본 인민과 함께 전진하고 있다.

지난 10 여 년 간에 걸쳐 《한일 회담》을 수치스러운 파탄의 운명에 처하게 한 결정적 요인은 조선 인민과 함께 일본 인민의 강력한 반대 투쟁이였다.

최근 시기만 하여도 조 일 량국 인민은 《한일 회담》 속결 음모를 수차에 걸쳐 좌절시켰다. 폭발 전야에 이른 남조선 인민의 반미 반군사 《정권》 투쟁 기세와 일본 인민의 《한일 회담》 반대 투쟁의 앙양에 겁을 먹은 미 일 반

동 세력과 남조선 군사 파쑈 도당은 최근 주저하며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인민은 투쟁 기세를 늦춤이 없이 적들이 동요하는 기회에 계속 공격을 강화하면서 《한일 회담》을 결정적으로 분쇄하기 위하여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 *

조선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는 력사적인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하신 중앙 위원회 총화 보고에서 《우리는…자기 나라의 완전한 독립과 민주주의적 발전과 중립을 위한 일본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일본 인민과의 친선적 뉴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조선 인민은 《한일 회담》을 반대하는 일본 인민의 영웅적 투쟁에 열렬한 지지 성원을 보내고 있으며 굳은 국제적 련대성을 표시하고 있다.

《한일 회담》을 분쇄하는 것은 조선 인민과 일본 인민의 공동의 투쟁 과업이다.

《한일 회담》의 원흉인 미 제국주의는 조 일 량국 인민의 공동의 원쑤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조국의 남반부를 강점하고 있으며 일본 령토인 오끼나와를 강점하고 일본 각지에 군사 기지를 포치하고 있으며 일본을 종속화시켜 지배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 내는 것은 조선의 평화적 통일의 선결 조건이며 일본 전역에서 미군을 몰아 내고 미 일 《안보 조약》을 파기하지 않고서는 일본의 진정한 독립은 있을 수 없다.

미제의 적극 추동 하에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한일 회담》을 벌려 놓고 남조선에 재침략의 검은 마수를 뻐치고 있다. 조 일 량국 인민은 다 같이 과거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형언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당하였다. 오늘 미제의 비호 하에 부활, 강화되고 있는 일본 군국주의를 반대하며 일본 제국주의의 재대두를 저지하는 것은 조 일 량국 인민의 공동의 투쟁 과업이다.

승리는 《한일 회담》을 반대하는 정당한 위업에 궐기한 조선 인민과 일본 인민의 편에 있다. 조 일 량국 인민의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반드시 《한일 회담》은 분쇄되고야 말 것이다.

문답학습

법칙과 혁명 실천

자연과 사회의 천차만별한 사물 현상들은 무한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엉켜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물 현상들은 일정한 체계 내에서 정연한 질서를 가지고 운동하며 변화 발전한다.

자연 현상에서만 보아도 약속이나 한듯이 춘하추동 사시절이 부단히 교체되며 봄이 오면 식물들은 일제히 싹이 트고 꽃이 피며 가을에는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사회 현상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지구 상의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서로 적대되는 로동자와 자본가 간의 계급 투쟁이 벌어지고 있고, 식민지 나라들에서는 반제 투쟁이 앙양되고 있으며, 인류 사회는 점차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넘어 가고 있다.

복잡하게 뒤엉킨 물질 세계가 어째서 이렇게 일정한 체계,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변화 발전하게 되는가?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물 현상들의 변화와 발전 과정에는 법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연과 사회의 변혁을 촉진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러한 법칙에 의거해야 하는 것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외부 세계…의 법칙들은 인간의 합목적적 활동의 기초이다.》(전집, 제 38 권, 246 페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군들이 객관 세계에 작용하는 법칙에 대한 개념과 법칙과 혁명 실천의 호상 관계를 옳게 인식하는 것은 당 사업, 경제 사업, 문화 사업 등 모든 실천 활동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 *

법칙이란 사물 현상들 간에 내'적으로 맺어지는 본질적이며 필연적인 련관을 반영하는 철학적 범주이다.

따라서 법칙은 물질 세계의 다양하고 복잡한 련관의 전반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련관을 반영한다는 데 있다. 본질적 련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 자체의 본질과 련관되여 있는 것을 의미한다. 례하면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은 생산 수단을 독점한 자본가들이 로동자들을 착취하며 억압하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고 살륙하는 것은 자본주의 제도 자체 내에 근원을 두고 있는 본질적인 관계이다. 이와 같이 착취와 억압, 침략과 략탈은 자본주의 사회에 작용하는 법칙이다.

법칙은 사물 현상들의 본질적 련관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연적 관계를 보여 준다. 법칙이 필연적이라는 것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다르게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장성의 법칙,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분배 법칙 등이 반드시 작용한다.

또한 법칙은 어떤 개별적인 현상에만 고유한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관계를 반영한다.

적대적 계급으로 분렬된 계급 사회에서 작용하는 계급 투쟁의 법칙은 계급이 존재하는 전 기간 모든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반복성을 가지고 작용한다.

법칙은 사람들이 알건 모르건 또는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관계 없이 사람들의 의지와 독립하여 작용한다. 법칙들이 이렇게 객관적 성격을 가지는 리유는 법칙이 작용하며 그의 존재 조건을 이루는 물질 세계가 사람들의 의식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법칙을 자의대로 창조할 수 없으며 폐절할 수도 없다.

현대 부르죠아 철학자들은 법칙의 객관성을 부인한다. 그들은 법칙은 사람들이 만든 《도구》이며 효과적으로 살아 가기 위한 《방법》이라고 떠벌리면서 사람이 그것을 제정하고 폐기할 수 있다는 궤변을 늘여 놓고 있다.

이것은 사회 발전의 객관적 행정을 부인하며 비과학적인 종교적 의식을 부식시키고, 멸망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영원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자연 법칙과 사회 법칙은 객관성을 가진다는 데서 동일하지만 그 발현에서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자연 법칙은 사람들의 활동과는 관계 없이 나타난다면 사회 법칙은 사람들의 의식적 활동을 통하여 발현된다.

례하면 락하하는 모든 물체는 1 초 동안에 9. 8 메터의 가속도를 가지고 땅에 떨어진다는 자유 락하의 법칙은 사람들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작용한다. 그러나 사회에 작용하는 생산력 성격에 생산 관계의 적응의 법칙은 사람들의 의식적 활동에 의하여, 계급 사회에서는 계급 투쟁을 통해서만 실현된다.

법칙이 객관성을 가진다고 하여 사람들이 법칙 앞에서 무능력한 수동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법칙을 자의로 처리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리용함으로써 법칙의 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제한할 수 있다.

례하면 모든 생명 유기체들은 적응성과 유전성을 가지고 발전한다. 사람들은 이 합법칙성을 인식하고 동식물의 외부 환경, 생활 조건을 인공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우량 종자와 종축을 길러 내며 농업 생산과 축산업을 발전시키게 된다.

자연과 사회 발전의 객관적 법칙의 인식 리용의 정도와 범위는 사회 발전 단계와 사회 제도에 의하여 제약된다.

사회 발전의 낮은 단계에 있어서는 아직 법칙이 적게 발견되였으며 따라서 그의 리용도 협소한 테두리를 벗어 날 수 없었다. 사회의 전진과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만 인류는 점차 더 광범한 범위에서 법칙의 주인으로 될 수 있었다.

법칙의 리용은 다른 편으로는 계급적 관계에 의하여 제약을 받았다. 적대적 계급으로 나뉘여져 있는 사회에 있어서는 과학 문화 사업이 착취 계급의 수중에 독점되여 있었다. 그리하여 법칙의 리용은 우선 전 사회적인 성격을 띨 수 없었고 또한 착취 계급은 법칙이 자기들의 계급적 리해가 상반될 때에는 그의 리용을 억제함으로써 더욱 제약을 주었다.

특히 사회의 운동 법칙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것은 맑스주의 발생 이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해명이 주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과거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 법칙의 리용에 대해서는 거의 말할 수 없었다.

자연 및 사회에 관한 법칙들의 전면적인 인식과 리용은 오직 과학의 전면적인 발전과 그의 리용에 있어서 계급적 제약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백방의 조건과 가능성이 주어지는 사회주의 사회에 와서만 이루어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이행은 《필연의 왕국으로부터 자유의 왕국에로의 인류의 비약》으로 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람들은 객관적 물질 세계의 발전 법칙을 인식하고 그것을 혁명 실천에 적극적으로 리용할 수 있다.

법칙과 혁명 실천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 있는 두 측면이다. 법칙은 사람들의 의지와 독립하여 진행되는 객관적 과정을 반영한다면 혁명 실천은 객관적 법칙에 기초하여 사람들이 자기의 의식적 목적을 실현하는 주관적 활동이다.

자연과 사회를 변혁시키며 인간 의식을 개조하기 위한 혁명 실천의 성과는 객관적 법칙을 얼마나 정확히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리용하는가에 크게 달려 있다.

사회 발전 법칙을 철저히 인식하고 혁명 실천에 훌륭하게 리용한 실천적 모범은 우리 당과 김 일성 동지의 탁월한 령도 예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해방 전 우리 나라 발전을 저애한 것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 제도와 봉건적인 착취 관계였다. 김 일성 동지는 사회 발전 법칙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 조건과 특수성을 분석한 기초 우에서 우리 혁명의 성격을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혁명 수행의 과학적 방도로써 계급 투쟁의 최고 형태인 무장 투쟁을 조직 전개하여 일제와 그 주구들을 분쇄하고 혁명을 촉진시켰다.

해방 후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은 우리 나라 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을 옳게 인식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공화국 북반부에서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촉진시킴으로써 강력한 사회주의 공업-농업 국가를 건설하였다.

특히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 발기에 의하여 확립된 새로운 공업 및 농업 지도 체계는 우리 사회 발전 법칙의 객관적 요구를 가장 능숙하게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생산력 발전에서 일대 앙양과 생산 관계를 공고히 함에 있어서 전변을 가져 왔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은 혁명 실천의 매 계단에서 항상 객관적 법칙에 철저히 의거하여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우리 혁명을 최대한으로 촉진시키고 있다.

우리는 혁명 실천에서 반드시 객관 법칙을 철저히 인식하고 그에 튼튼히 의거하여야 한다. 법칙을 알지 못하면 그 만큼 자연과 사회에서 무능력한 존재로 남아 있게 된다.

자연과 사회 발전의 객관적 법칙을 정확히 인식하고 투쟁할 때 자기가 진행하는 혁명 투쟁의 전도를 과학적으로

예견하고 필승의 신념을 가질 수 있다. 그리하여 혁명 실천에서 대담성과 용감성을 발휘하여 목적 의식적으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 수 있다. 법칙에 대한 옳은 인식과 리용이 없이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혁명 실천에서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사회를 빨리 발전시키는 훌륭한 운전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사회의 발전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선집, 제 6 권, 514 폐지)

모든 일'군들은 사회 발전의 객관적 법칙을 명백히 인식하기 위하여 맑스-레닌주의 원리를 정확히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조선 혁명을 수행하는 것 만큼 우리 사회 발전 법칙을 리해하기 위하여 우리 당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깊고 폭이 넓게 연구하고 생활에 구현시켜야 한다. 우리 당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는 바로 우리 사회 발전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밝히고 있다. 때문에 우리 당 정책은 우리 일'군들의 혁명 실천의 《백과 사전》이며 행동의 《자》로 된다.

기술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일'군들은 또한 선진적인 과학과 기술로 무장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 나라 생산력을 더욱 빨리 발전시킬 수 있다.

법칙의 인식은 혁명 실천을 잘 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 만큼 법칙을자기의 실천 활동에 옳게 리용하여야 한다.

객관적 법칙의 요구를 훌륭히 실현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일'군들의 혁명 정신에 달려 있다. 우리 나라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새로운 공업 관리 체계가 확립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 법칙의 객관적 요구를 훌륭히 실현할 수 있는 조건들이 구비되였다. 그러나 일부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일'군들의 혁명적 사상 의식 수준이 낮고 혁명적 실천에 이악하게 달라 붙지 않기 때문에 대안 전기 공장에서와 같은 높은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모든 일'군들이 혁명 실천에서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일'군들은 자연과 사회 발전의 객관적 법칙을 철저히 파악하고 높은 혁명 정신으로 그것을 자기의 혁명 실천에 적용함으로써만 부과된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우리 사회 발전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

최 석 만

근로자 제 5 호 (루계 제 219 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발 행 • 1963년 3월 5일 인 쇄 • 1963년 3월 3일

ㄱ—330156 값 40 전

조선의 명인

판형 국판, 페지 772페지
발행 부수 10,000부

최근 과학원 출판사에서는 우리 나라 력사의 자랑인 명인들의 생애와 활동, 그들의 업적을 담은 단행본《조선의 명인》을 출판하였다.

이 책에는 기원 전 시기로부터 19세기 말에 이르는 장구한 시기에 걸쳐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과학, 문화, 군사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한 78명의 애국 명장들, 탁월한 사회 활동가들과 학자, 문화인들 및 전문가들의 투쟁 업적을 수록하였다.

이 책에서는 명인들의 업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적 방법론에 철저히 의거하여 당성 원칙과 력사주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였으며 매개 명인들이 조국의 륭성 발전과 과학 문화의 보물고에 기여한 가장 중요한 업적들을 밝히는 동시에 그들이 우리 나라 력사 발전에 기여한 모든 측면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였다.

이 책의 서술 순차는 명인들의 출생과 활동 년대 순으로 되였으며 그들의 활동과 관련된 많은 직관 자료들을 삽입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 나라 력사에 대한 체계적이며 폭 넓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이 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선조들이 이룩한 불멸의 애국 전통과 유구하고도 풍부한 민족 문화로 빛나는 우리 인민의 력사를 학습함에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을 줄 것이며 그들의 민족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북돋우어 혁명 과업 수행에로 보다 힘 있게 고무 추동할 것이다.

이 책은 과학원 출판사에서 발행했다.